

## 대기업 계열사 10곳 중 2곳 자본잠식

1128곳 중 295곳 부실화 진행 롯데 94개 중 30곳 가장 많아 완전 자본잠식도 6개에 달해 재계정책 변화로 구조조정 속도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10곳 중 2곳이 자본잠식이 진행됐거나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리스크 변동에 따른 재계 정책 변화를 앞두고 대기업들

이 부실계열사를 신속하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0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은 모두 27곳으로, 이들 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는 1128곳이다. 이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시작된 회사는 295곳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10곳 중 2곳 이상이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 부실 계열사 중 43곳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향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별로 보면 부실화가 진행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현재 계열사는 94개다. 이 중 30개의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도 6개에 이르는 등 구조조정 대상 계열사가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J그룹도 2015년 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중인 계열사만 7개에 이른다.

이는 대기업들이 신중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업종에 대한 외형 확장 과정

에서 부실 계열사를 함께 편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사태 등 해운업과 조선업 불황으로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부실화가 급격히 이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11곳이 다른 계열사에 흡수 합병되거나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실 계열사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 일자리가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의 역습

‘스마트미터’ 2020년까지 보급 전기검침원 5000명 실직 위기

오는 2020년에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 사용량을 조사하는 계량기 검침원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계량기 검침원은 현재 5200명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스마트미터기(AMI)를 2020년까지 2200만 가구 전기 소비자 전체에 보급하기로 하면서 전기 검침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놓였다. 신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4차 산업혁명의 역습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산업부는 지난 5일 2017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AMI를 전기 소비자 전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전기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원격 스마트 계량기는 현재까지 230만 가구에 구축돼 있는데 올해 450만 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전체 가구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AMI가 설치되면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해 전력 사용량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력회사가 원격으로 전력 소비량을 체크할 수 있다. AMI를 통한 원격 검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량기 검침원이 필요 없게 된다.

박엘리 기자 ellee@ ▶3면으로 계속

### 최순실 오늘은 입 열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동근 기자 foto@

## 경제 충격·대외신인도 어찌라고...

특검, 이재용 영장신청 여부 막판 고심...재계 우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 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기준을 놓고 고심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의 간판 그룹인 삼성의 최고 경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우리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의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6면

특검이 16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하자, 재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가 잘못됐다 는 게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기업 수뇌진을 피해자가 아닌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顛倒)의 상황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 그룹 수뇌부까지 모조리 피의자 전환과 구속 영장 발부 위엄에 노출되면서 그룹 전체에 리더십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일시 해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윈, 손정의 등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이 트럼프 진영을 만나고, 민·관이 함께 뛰는 상황에서 우리만 경제외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안철우 기자 acw@



막 오른 美 트럼프시대

① 긴장하는 세계

## 정치·경제 마찰...불통의 시대 우려

TPP 등 정책 폐지·수정 불가피 각국 중앙은행 트럼프 행보 주목 美 곳곳서 반트럼프 시위 잇따라

‘정치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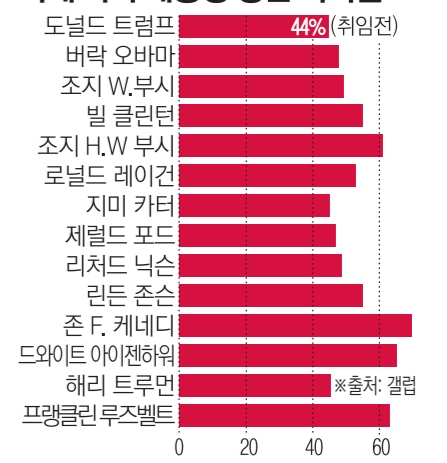
대선 기간 내내 논란과 돌풍을 동시에 몰고 다녔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조차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인종과 종교, 성 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높여더니 차기 행정부 인선으로도 일찌감치 도마에 올랐다. 대선 기간 월가의 탐욕을 거세게 비판했지만 정작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등 경제팀 요직은 월가 인물로 전진 배치했다. 안보 진용에는 초강경 인사들을 앉혔고, 자신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일군 레거시(유산)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이란 핵 합의, 기후변화 협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전복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로 ‘하나의 중국’에 합의를 낸 트럼프는 급격히 냉각된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마찰도 우려된다.

금융시장도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다. 11일 당선 이후 진행된 트럼프의 첫 기자회견은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자신

역대 미국 대통령 평균 지지율



의 공약인 재정지출 확대, 감세, 규제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취임식에서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언급한다면 뉴욕증시는 상당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는 물론 중앙은행들도 트럼프의 취임 이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완화 기조를 이어가던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도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대선 이후 양분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것도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당선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한 일방적 소통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어 ‘불통’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의회에서는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 어가고 있으며, 미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반(反)트럼프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취임 전 지지율도 44%로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최저를 기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실속·정성 한가득 설 선물 ▶18-21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www.kumk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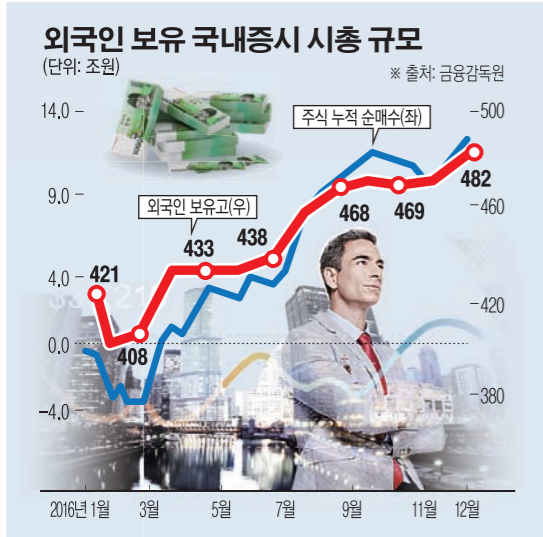
선물의 베스트 - 금강상품권

마음을 전하는 방법

HERITAGE BRUNOMAGLI REGAL RENOIR LANDROVER

18년 연속 1위 13년 연속 1위 14년 연속 1위 11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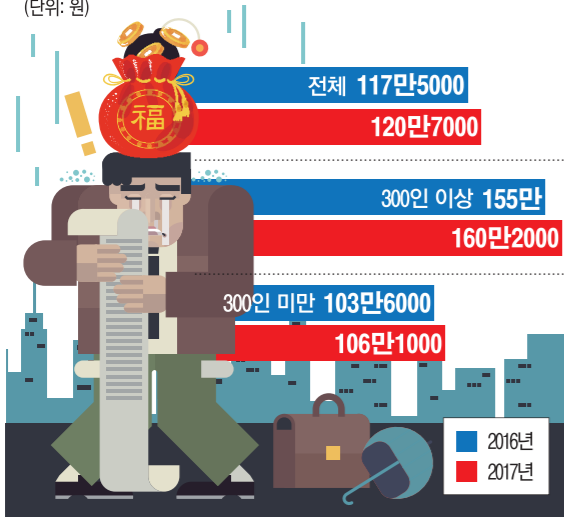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외국인 지난해 12조 '순매수'... 국내증시 보유시총 480조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480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2%로, 전년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국내 증시에서 12조1000억 원어치의 상장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은 481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2012년 국내에서 17조630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2013년 4조7420억 원, 2014년 6조28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2015년 3조5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작년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다. 지역별 보유 규모는 미국이 197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140조1000억 원)과 아시아(59조8000억 원), 중동(24조500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인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수익률 하락을 우려해 채권시장에서 12조3000억 원의 자금을 빼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기업규모별 2017년 설 상여금 지급액 (단위: 원)



대기업 160만원·중소 106만원... 설 보너스도 '빈익빈 부익부'

올해 설 상여금 지급 예정 기업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여금 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5인 이상 3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3.8% 대비 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이 75.4%, 300인 미만 기업은 67.0%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상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20만7000원으로, 지난해 117만5000원보다 3만2000원(2.7%) 소폭 늘어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액이 160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2000원(3.4%), 300인 미만 기업은 10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5000원(2.4%) 각각 증가했다. 각 기업 집단의 평균 상여금 격차는 54만1000원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미적대다 재벌개혁 표적” 대기업 ‘씩은살’ 셀프수술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 속도

‘1000억 손실’ 두미종합개발, 효성 발목 OCI, 이테크인프라 존속가치 불투명 능력 구조조정 고스란히 기업리스크로

조기대선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 커져 모기업에 위협... 정리 움직임 빨라져 부실 계열사 7곳 흡수합병·4곳은 해산

그룹	계열사 수	지분잡식 계열사
삼성	59	9
현대차	51	13
SK	89	13
LG	72	13
롯데	94	30
포스코	38	13
GS	68	22
한화	60	14
현대중공업	26	6
농협	53	6
한진	36	14
두산	25	6
KT	41	12
신세계	35	11
CJ	69	21
부영	20	5
LS	46	12
대우조선	14	5
대림	26	15
금호아시아나	25	4
현대백화점	32	3
OCI	22	7
효성	45	15
미래에셋	42	14
S-OIL	2	0
대우건설	16	8
영풍	22	3

“E삼성 세운 적 있나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도로 설립한 ‘E삼성’ 등을 거론하면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집중 추궁했다. E-삼성인터내셔널은 사업이 본래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적자 누적 등으로 2012년 해산이 결정돼 현재 존재하지 않는 회사다. 그러나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해산 4년이 지난 뒤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주홍글씨처럼 남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효성은 모기업을 통해 막대한 유상증자와 자금 지원을 해오던 두미종합개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엔지니어링도 모기업에 흡수합병됐다.

이들 두 기업은 모두 자본잡식으로 모기업의 지원을 받으면 겨우 존속하던 계열사였다. 특히 두미종합개발은 당초 오너가에서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설립한 계열사로 부실이 커지면서 효성이 떠안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두미종합개발은 적자 누적 등으로 납입 자본금 400억 원까지 모두 까먹었다. 또 순손실 누적으로 자본 총액은 마이너스 5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돈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셈이다. 향후 오너가의 경영능력에 생체기를 남겨줄 수 있는 부실 계열사라는 딱지를 남긴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27개다.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는 1128곳이다. 이 중 295곳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잡식에 빠진 상태다. 이 가운데 45곳은 연속 적자와 완전자본잡식으로 회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신속하게 정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부실 계열사 7곳이 모기업 또는 그룹 내 계열사로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산 결정이 내려진 계열사도 4곳에 이른다. 자본잡식은 재무제표 계정에서 적자 누적 등으로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밑도는 상태를 말한다. 자본잡식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사실상 완전자본잡식에 빠진 것으로 본다.

이는 대기업집단 경영진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내외적 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

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가 주력 계열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언제 정상화할지 모르는 계열사에 지원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OCI그룹의 경우 20억 원이 넘는 자본금을 투입한 이테크인프라가 모기업의 지속적 지원에도 존속 가치가 불투명해지면서 90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특히 조기 대선 등 대기업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내부 거래 또는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향후 그룹 경영 자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기업집단 부실 계열사 중 설립과 편입과정이 문어발식 외형 확장과 오너가의 사적 이익 추구 등에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계열사를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스스로 발미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부실 계열사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업무 자체가 좋지 않은 계열사가 우선 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우리 쌀로 빚은 우리 차례주

오래 살며 길이 보을 누리다

백화수복

올해도 한결같이 차례상엔 백화수복입니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에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ING생명에 패스트트랙 적용... 6월 상장 (상장심사 간소화)

한국거래소, 실적 견조한 기업심사 간소화 내달 상장예비심사 신청... 3월에 끝날 듯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ING생명 보험에 패스트트랙(상장 심사 간소화)이 적용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ING생명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일을 기존 30~45일에서 20일로 줄이기로 했다. 심사 간소화를 통해 보다 빠르게 ING생명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은 ING생명의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근 1년 7000억 원, 과거 3년 평균 5000억 원을 넘어야 한다. 이익(영업이익의 세전이익 중 낮은 수치) 기준으로는 최근 1년 300억 원 이상, 과거 3년 합계 600억 원 이상을 웃돌아야 한다.

ING생명은 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ING생명의 2013~2015년 연 평균 매출액은 3조7673억 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합계는 9619억 원에 달한

다. 이 회사는 2016년 실적 윤곽이 나온 뒤인 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예비심사가 3월 초에 끝나면 이 회사는 올해 6월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회사는 6개월 내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ING생명의 경우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장일을 늦출수록 기업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ING생명의 시가 총액은 2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구주매출(기존 주주가 보유한 자본 공개 매각)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가 50%가량의 구주매출을 하면 상장을 통해 1조 원 중후반대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상장 주관은 삼성증권, 모건스탠리가 맡았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8년 후 1600만명, AI·로봇에 일자리 뺏겨 거리 나앉을 판

(2025년)

## 4차 산업혁명, 실업자 양산 우려

#개인택시 기사인 A(45)씨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다. A씨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문제와 사고 시 도덕적 판단 기준 등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이런 결점이 해결되면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면 현재 대중교통 운전기사 대거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달 초 발표한 인공지능·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 수행능력 중 12.5%는 현재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41.3%, 2025년 7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어떤 직업군이 얼마큼 AI·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6~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9개 기관의 전문가 2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대체 비율이 70% 이상인 직업을 ‘고위험 직업군’이라고 분류하면, 2025년 국내 직업종사자 61.3%가 AI·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전체 근로자(2659만 명)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불과 8년 뒤에는 약 1630만 명이 AI·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전체직업 중 인공지능·로봇 대체율 올해 12.5→2025년 70.6% ‘평균’ 단순노무직·농어업직 대거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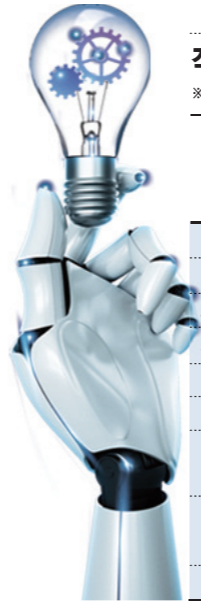
2055년엔 세계노동시장 절반 대체 “러다이트운동처럼 변화 거부보단 직업능력 개발 등 주도적 적응 필요”

는 설명이다.

직종별로 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단순노무직(90.1%)과 농림어업종사자(86.1%) 등의 대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관리직과 전문직의 대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계사는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대응할 만한 전문성을 지녔고, 항공기조종사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정보원은 실제 AI·로봇이 해당 직업을 대체할지 여부는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합의 등에 좌우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2025년경에는 AI·로봇이 본격적으로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금부터 일자리 위험 직종을 분석해 해당 분야 종사자의 직업능력을 높이거나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며 “산업혁명이 러다이트운동에서 확인됐듯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



### 직업별 AI·로봇 대체가능비율 분석

※ 자료 : 고용정보원

전체	2016년			2020년			2025년		
	인원(만명)	대체가능비율	대체가능비율	대체가능비율	대체가능비율	대체가능비율	대체가능비율	대체가능비율	
	2690	12.50%	41.30%	70.60%					
관리자	32	7.10%	22.70%	49.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42	7.80%	29.90%	56.30%					
사무 종사자	453	10.20%	32.20%	61.30%					
서비스 종사자	284	13.70%	45.20%	75.90%					
판매 종사자	308	11.90%	39.40%	74.20%					
농림어업 종사자	127	17.80%	53.80%	86.10%					
기능원 및 관련	241	11.00%	42.50%	74.30%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14	11.70%	50.40%	79.10%					
단순노무 종사자	354	25.90%	63.80%	90.10%					

### AI·로봇의 대체비율 높은 직업

순위	대체 비율 높은 직업	대체 비율	순위	대체 비율 높은 직업	대체 비율
1	청소원	1	11	플트 및 종이 생산직(기계조작)	0.905
2	주방보조원	1	12	세탁원 및 다림질원	0.902
3	매표원 및 복권판매원	0.963	13	화학물 가공 및 생산직(기계조작)	0.902
4	낙농업 관련 종사원	0.945	14	곡식작물재배원	0.9
5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0.944	15	건축도장공	0.899
6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0.943	16	양식원	0.898
7	금속가공기계조작원	0.943	17	콘크리트공	0.897
8	청원경찰	0.928	18	패스트푸드원	0.89
9	경량철골공	0.92	19	음식 배달원	0.888
10	주유원	0.908	20	가사도우미	0.887

※ 직업별 업무수행능력 대체비율 : AI·로봇의 해당직업종사자 업무수행능력수준 초과항목 / 전체 업무수행능력 항목  
※ 자료 : 고용정보원



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보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현재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2055년까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도 전체 노동의 49%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11억 명의 근로자가 하는 15조8000억 달러 규모의 노동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백악관은 ‘인공지능, 자동화와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능력의 가속화가 인간의 생계 수단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단순노동 일자리부터 대체하면서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더욱 악화시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승차독식 구조의 정보기술(IT) 시장에서 극소수의 선두 주자에게 이익이 몰려 고임금 전문직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AI로 인해 2030년 일본의 고용자 수가 240만 명 급감할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소는 제조, 유통, 금융, 서비스 등 9개 산

업 분야를 분석한 결과 AI 보급으로 2030년에는 현재보다 500만 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는 반면, 74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업종별로 보면 AI나 로봇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 고용이 270만 명 증가하지만, 공장 등 생산현장에서 150만 명, 건설업에서 67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보고서에서 AI와 로봇 등의 기술에 뒤처지면 73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 4차 산업혁명의 역습

▶1면서 계속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해 6개 검침회사로 구성된 검침연대는 “사업자 편의 위주가 아닌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이나 전방,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부터 원격 검침을 실시해야 한다”며 “각 사업소에 정년 퇴직자만큼만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대체업무를 통해 대량 실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침연대는 “검침원들이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생활 지원이 가능토록 해왔다”며 “원격검침이 전면 시행

되면 이 같은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전력은 현재 검침원, 고지서 송달원, 단전원 등의 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인위적 인력 조정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고용안정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발표한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210만 개 만들어지지만 전체적으로 500만 개가 순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리미엄 소비재 7500명·로봇 4600명·가상현실 2000명...

## 12개 신산업에서 일자리 3만개 창출

### 정부, 차세대 유망산업 집중 육성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신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6일 산업부의 ‘2017년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12대 신산업에 민간 합동 17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12대 신산업별 올해 일자리 창출 규모는 △미래형자동차 1600명 △친환경선박 300명 △사물인터넷(IoT) 가전 1300명 △항공·드론 200명 △로봇 4600명 △바이오헬스 1200명 △프리미엄 소비재 7500명 △첨단 신소재 1100명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2000명 △시스템 반도체 2500명 △차세대 디스플레이 700명 △에너지신산업 3300명 등이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12대 신산업별 현 인원과 향후 인력수요 변화를 전망해 도출했다.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량인 고용계수를 전망하고, 불변가격 기준 생산액을 추정해 미래 유망 신산업별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했다. 연평균 12.3%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전제로 도출한 수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최근 발표한 ‘미래 유망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ICT융복합,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고급소비재 등 미래 유망 신산업 5대 분야 13개 산업에서 오는 2020년까지 총 21만43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10만41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 인력 규모를 보면 스마트홈 산업은 2020년까지 5만4600명에 달하는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홈 산업 인력은 2020년 9만4100명 수준으로 2015년(3만95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홈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사물인터넷(IoT) 발달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꼽혔다.

지능형 로봇산업 인력은 2020년 1만9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로봇 분야 인력 규모도 2015년(78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진다.

바이오·의약 산업 인력 규모도 2020년 1만96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산업군별로 산업 전문인력 양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산업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집중 투자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건강한 2017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사돌 플러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이뽁건강을 선물하세요

동국제약 Dongkook

### 이뽁건강에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 기존 인사돌 성분과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 개발된 의약품입니다
- 이뽁건강을 위해 물비린 양치 및 치과 검진과 함께 복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 스케일링, 임플란트에 함께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550-7575 / 광고심의필 : 2017-1378-4101  
※ 효능·효과 :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김종인, 킹메이커 아닌 '킹' 도전

내달 초쯤 대선 출마 의사 표명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 위해  
헌법 개정·임기 3년 공약 등  
반기문·손학규와 '빅텐트'도 구상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우리미래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2월 초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등과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고 연합하되 이번엔 킹메이커가 아닌 직접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가 책임총리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위에선 빨리 (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뭐가 그리 급하냐. 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정국이 정리될 것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더라"면서 "김 전 대표의 머릿속엔 이미 일정 계산이 다 짜여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헌법 개정 등 굵직한 공약도 이미 구상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2020년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고,

임기 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극복을 위한 개헌 및 선거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로 하여금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반 전 총장, 손 전 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과 함께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를 꾸린다는 복안이다. 이 측근은 "개헌보고서 파동에서도 보였듯이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경선 물도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 박 시장

과 김 의원이 받아들여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표의 연세가 많은 게 흠이지만, 3년 동안만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 구상대로라면 차기 대통령과 총리, 차차기 대통령과 총리 등 4명이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젊은 정치인들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측근은 "김종인 전 대표가 깃발을 들면 민주당에서 20~30명, 국민의당에서도 20여 명의 의원이 함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문 전 대표를 두고 "지난 총선 때처럼 문 전 대표가 집토끼를 잡고 김 전 대표의 확장력을 업는다면 이번 대선을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사이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쪽박을 차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40~50%는 나와야 하는데 최고치가 30%이니, 문 전 대표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난세엔 김 전 대표와 같이 경력과 통찰력 있고 기민한 대응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만 해도 발표 당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고위관계자도 못하는 분석을 내놓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 문재인·반기문 지지율 격차 3.9%p

(26.1%p) (22.2%p)

潘 귀국 후 민생행보에 소폭 상승  
오늘 문재인 정치 고향 부산 공략  
文 여론조사서 불안한 1위 지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이후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9~13일 전국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된 1월 2주 차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다자구도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26.1%, 반 전 총장은 22.2%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떨어진 반면, 반 전 총장은 0.7%포인트 올랐다. 반 전 총장이 12일 귀국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민생행보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귀국한 반 전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량 급증으로 반등하며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소폭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민심을 공략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오전에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현장을 방문해 협력사 협의회 대표단 간담회를 연 반 전 총장은 오후 부산으로 이동해 유엔 기념공원 방문 및 대학생과 타운홀 미팅, 강릉시장,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등 구석구석을 누빈다.

## 차기 대선 다자구도

후보명	지지율	동락률	후보명	지지율	동락률
문재인	26.1%	0.7%p하락	손학규	2.3%	0.7%p하락
반기문	22.2%	0.7%p상승	유승민	2.2%	1.2%p하락
이재명	11.7%	0.3%p하락	홍준표	1.3%	0.3%p상승
안철수	7.0%	0.5%p상승	남경필	1.2%	0.1%p상승
안희정	4.9%	0.1%p하락	김부겸	1.1%	0.1%p상승
박원순	4.4%	0.1%p상승	원희룡	0.7%	0.3%p상승

※ 리얼미터 1월 2주차(9~13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

재벌개혁을 매개로 연일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소폭 하락해 11.7%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7.0%, 안희정 충남지사 4.9%, 박원순 서울시장 4.4%,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2.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2.2%, 홍준표 경남지사 1.3%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정당별로 1명씩 대선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반 전 총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경쟁력은 확연히 떨어졌다. 6차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문 전 대표는 34.4%를 얻은 데 비해 무소속 반 전 총장은 20%가 붕괴되면서 18.3%로 폭락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안 전 대표는 11.2%, 새누리당 소속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9.5%, 바른정당 소속의 유 의원은 5.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의중 기자 zerg@



박지원(왼쪽) 국민의당 신임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원 "대선보다 당 단합" 자강론에 방점

현충원 참배로 국민의당 대표 행보 시작  
향후 대선 일정은 안철수·천정배와 함께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가 16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당 대표 활동을 시작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방명록에 "국민 편,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전날 전당대회에서 함께 선출된 문병호 황주홍 손금주 최고위원 등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그러나 국민 정서를 이유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는 들르지 않았다.

이후 박 대표는 국회에서 첫 지도부 회의를 열고 대선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다. 박 대표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영입,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와 함께 당내 '대선드림팀'을 꾸리겠다고 '연대론'을 폈으나,

일단은 당을 단합하고 힘을 모으는 '자강론'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내 수권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을 대선 체제로 신속히 개편하면서도 인재 영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와 논의하고 대권 후보들과 협의해 당내 수권비전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만 가능하다면 내일부터라도 회제가 낫던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을 당 대선주자인 안·천 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 등으로부터 축하 인사가 있었고, 이른 시일 내 한번 만나자는 얘기를 했다"며 특히 반 전 총장에 대해선 "덕담 수준으로 한번 뵙자고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출금, 불법 광고 활용, 보이스피싱 및 스피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된다. 그만큼 피해

는 가능케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과 대형마트, 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해킹과 고의 유출 등을 통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패스워드 등이 빠져나갔지만,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유도했다. 김의중 기자 zerg@

건강  
가능식품

신용보증재단인증

대상 Wellife

# 밥은 죄가 없습니다!

답답한 장운동, 오르락 내리락 혈당걱정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밥만 탓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장건강부터 혈당관리까지—  
장쾌한 아침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듯이 행복하자!**  
장건강은 물론 혈당관리까지 한번에—  
장쾌한 아침/장쾌한 아침 플러스

**제품구입문의 080-433-5555**

# 4강·유엔대사 부른 황代行

(美·中·日·러)

## ‘외교·안보현안’ 긴급 논의

동북아·한반도 정세 대책회의의 열여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제재 공조안  
중사드·日소녀상 외교갈등도 의제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 조짐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혐의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긴박해지면서 정부가 긴급 조처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와 유엔 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 대사와 이준규 주일본 대사, 김장수 주중국 대사, 박노박 주러시아 대사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유엔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주변 4강과 유엔 대사만 참석하는 소규모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에는 운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황 권한대행 측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주한 대사를 귀국시키며 우리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연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예고하면서 북의 도발 가능성에서 대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과의 외교 갈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 의제에 올랐다. 황 권한대행은 이들 대사를 상대로 주변국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들 국가와 흔들림 없는 공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 가동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엔 그동안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리더십 공백을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국정 정상화에 힘써온 황 권한대행은 최근 어느 정도 국정이 안정됐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한 차례만 국정현안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신 해당 분야별 관계 장관회의를 활성화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돈 만드는 돈’ 부담… 韓銀, 설 신권수요 ‘고민’

지난해 제조비 1500억 2년 연속 증가… 명절 유동성에 손상 화폐도 늘어

유동성 확대와 손상 화폐 증가로 지난해 화폐제조비용이 1500억 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화폐제조비용은 1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440억 원보다 4.4%(6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주화(동전) 제조비용은 537억 원으로 2015년보다 2억 원 줄었지만 은행권(지폐)은 966억 원으로 7.2%(65억 원) 늘었다.

연간 화폐제조비용은 5만 원권이나 새 1만 원권 발행 등 신권 교체 수요가 있을 때를 빼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엔 2015년에 이어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명절을 대비한 유동성 확대와 손상 화폐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매년 설을 앞두고 한은이 찍어낸 화폐 규모가 늘었다. 설 직전 10영업일간 화폐 순발행액은 2013년 4조4000억 원에서 2014년 5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까지 5조2000억 원 선을 보였다.

손상돼 폐기한 화폐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

다. 2015년 손상 화폐는 3조3955억 원으로 전년(2조9847억 원)보다 13.8% 늘었다. 손상 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333억 원, 2012년 1조8337억 원, 2013년 2조2125억 원, 2014년 2조9832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엔 동전을 녹여 구리 등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동전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배로 강화됐다. 주화 훼손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AI 피해농가’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 2년 늘린다

농림부, 관계부처 협의… 연장 이자 감면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하기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키우던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감면한

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예정지역(발생농가 반경 10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다.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융자금은 주로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 자금 등이다.

농림부는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감면기로 했다.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농림부는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AI 발생농가 소재 지역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이 지난해 말 기준 773억 원, 이자감면액은 7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설 앞두고 쌓여있는 과일상자… 김영란법 영향?



설 연휴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물 경매장에 과일 박스가 쌓여 있다. 한 관계자는 불경기에 청탁 금지법의 영향으로 판매가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해외 IB, 韓경제성장률 줄줄이 하락

국정혼란·소비부진·美금리 등 불안요인 산재  
10개사 평균 2.4% 전망… 노무라 2% ‘최저’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대거 낮춰 잡았다. 이 중 일본 노무라는 기존 예상치보다 0.7%p나 내려 잡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0대 IB들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 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예상한 2.5%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3.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일본 노무라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가장 낮게 전망했다. 바클레이를 비롯해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다른 글로벌 IB들도 2.3%로 낮게 설정했다. 씨티은행과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는 각각 2.4%를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 목표치를 하회했다. 그나마 UBS가 2.6%로 우리 정부와 유사한 수치를 내놓았고, BNP파리바는 2.8%로 내다봤다. BoA메릴린치는 글로벌 10대 IB들 가운데 가장 높은 2.9%를 제시했다.

이러한 글로벌 IB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10대 글로벌 IB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IB	2016년		2017년	
	1월 전망	1월 전망	1월 전망	1월 전망
바클레이	2.4%	2.3%	골드만삭스	3% 2.4%
BNP파리바	2.4%	2.8%	JP모건	2.9% 2.3%
BoA메릴린치	3.2%	2.9%	모건스탠리	2.9% 2.3%
씨티	2.8%	2.4%	노무라	2.7% 2%
도이치뱅크	3%	2.4%	UBS	2.8% 2.4%

는 이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들 IB들이 지난해 1월 말에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에 달했다. BoA메릴린치는 3.2%까지 잡았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안요인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공백에 이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기업 투자 부진 우려 등이 내수 경제 침체를 더 심화시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등 대외변수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과 일본(소녀상 설치) 등의 문제까지 얽히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양창근 기자 yangck@

O HUI

### 설날엔 더 어려운 피부를 선물하세요

**오후 설 선물세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머물러주길’  
당신의 소중한 그 마음, 오후 설 선물세트에 담았습니다

**에이지 리커버리 3종 기획 세트**

- 에이지 리커버리 스킨스프니 150ml
-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20ml
-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20ml
- 디아콜 모노스카 클렌징 폼 40ml
- 에이지 리커버리 에멀전 130ml
- 에이지 리커버리 스킨스프니 20ml
-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3ml
- 립 컨트롤 클렌징 토너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기획 세트**

-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45ml
- 에이지 리커버리 스킨스프니 20ml
-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3ml
- 디아콜 모노스카 클렌징 폼 40ml
-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20ml
-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20ml
- 디아콜 모노스카 클렌징 폼 40ml

\* 전국 유명 백화점 약국점 방문판매 오후 카운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비회원 문의전화: 080-721-5252 / 회원 문의전화: 080-065-7007 www.ohui.co.kr \* O'HUI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여성가장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파장? 법리 구성 어떻게? 기각 때 수사동력 차질?

# ‘이재용 영장’ 나흘간 長考한 특검

### 삼성측 신병처리 여부 결정 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

당초 주말까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하겠다던 특검이 장고를 거듭한 이유는 영장 청구 여부 자체보다는 적용 혐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영수 특검검사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늘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총기(63) 사장, 대외협력담당 박상진(64) 사장 등 삼성그룹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이 적용 혐의를 놓고 법리를 고심한 이유는 삼성을 뇌물 공여자로 볼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삼성을 직권남용 관리방해죄의 피해자로 보고, 박 대통령을 공모관계에 의한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면 박 대통령은 수뢰자가 돼 범죄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면 ‘대가성’ 입증에서는 짐을 덜 수 있는 대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검사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상 재산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은 이를 위해 육영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박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해왔다. 삼성이 최 씨 모녀의 독립회사 코레스

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80억 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죄와 제3자 뇌물 혐의 등 둘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연맹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부분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는 논리 구성이 어려운 만큼, 제3자 뇌물 적용이 유력하다. 최 씨가 기획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검찰에서 적용한 직권남용 범죄를 허물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어도 구속영장에 기재할 혐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권남용과 뇌물죄의 징역 형은 5년 이하로 동일하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공무원인 박 대통령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어 최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 재계에서 주장하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앞두고 마음 급한데...

# 서울시 ‘35층’ 고집에 난감한 재건축조합

### 초고층 계획 잇따라 반력...올해 넘기면 최고 50% 세금 내야

새해 들어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초고층을 고집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최고 높이 35층’ 원칙을 고수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가 이뤄진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해 연말이 되자를 맞은 까닭에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이 얻는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연말 종료되는 까닭에 재건축 조합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 연내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486개이며, 서울에서만 155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몰리면서 서울시 도계위에 평균 10건의 정비계획 심의가 올라오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의 경우 재건

축 높이를 때문에 통과 여부가 조마의 관심사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015년 12월 초 고층 재건축 내용이 담긴 정비계획안을 처음 서울시에 냈으나, 층수를 하향 조정하라는 지적과 함께 반려되기도 했다. 그 뒤 총선의 최고 50층에서 49층으로 1개층 낮은 수정한 정비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는데, 이 설계안 역시 서울시 원칙인 35층 기준을 웃돌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시 측은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해 층수 제한 등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아파트 35층 초과 제한 완화 요구에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 겨울 빙벽 맛!



강원 홍천군 내면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7도를 나타내는 등 전국적으로 올 겨울 가장 한파가 몰아친 15일 강원 원주시 판대아이스파크에서 동호인들이 빙벽타기를 즐기고 있다. 기상청은 16일도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며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구인장 위협에 출석한 최순실...고영태는 연락두절

### 현재, 이번주 3차례 변론기일...이재만-안봉근도 항방 묘연

박근혜 대통령과 수십 년간 교류한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16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섰다. 최 씨에 이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측근들이 이번주 출석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이번주가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 씨, 오후 2시

에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두 증인을 상대로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로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핵심 탄핵 사유에 관해 신문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 예정이었던 형사 재판 준비와 특검 조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현재는 둘에게 재소환 통보를 한 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14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했다.

현재는 17일 6차 변론기일을 잡고 최 씨의 개인회사인 다블루케이 고영태(41)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둘 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역시 19일 증인으로 나서야 하지만, 행방이 묘연해 신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영길 기자 jy97@

# 기업 대출 앞선 사례비로 5000만원 前 LIG투자증권 부장 구속영장 청구

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앞선 후 사례비로 수천만 원을 받아 횡령 혐의로 전(前) LIG투자증권 부장이 검찰에 입건됐다.

1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장원지 특 수부는 이달 초 거액의 기업대출을 앞선 후 대가비 5000만 원을 수천만 원 LIG 투자증권 A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주)세인홀딩스 총괄본부장 B모 씨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대출 관련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사례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천만 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앞선수채)를 받고 있다.

특검법상 앞선수채죄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앞선과 관련해 단순히 금융

을 요구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대출 및 금융기관 유착 비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권 비리 등 관행적,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과거 LIG 투자증권에선 부동산금융팀 부장을, 바로투자증권에서는 IB팀 부장을 지낸 바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 2017년 1월 13일 이투데이에 게재된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당초	정정								
■ 건축물외부양에관한법률 제50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1973(2017.1.12.) 분양신고	■ 건축물외부양에관한법률 제50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2017-주택과 -분양신고-(2017. 01. 12.) 분양신고								
구분	정정								
당초 공동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분배에 대하여 ①용인성북 롯데캐슬 골드타운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하나의 대지로서 그 대지면적은 총 65,494,000㎡입니다. 관계법령 등에서 대지분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주거시설의 대지분배를 제외하고 각 용도별로 대지분배를 배분(오피스텔 4,130,365.0㎡, 판매, 문화집회 등 근린생활시설 17,504,326.4㎡)하였으며, 대지분배는 소수점 4자리 미만은 절사하였으며, 대지 지분 절사에 따른 대지비율 정산은 없습니다. ② 본 분양단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추상적인 건축물로 계획되어 대지는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오피스텔 각 세대/실별 대지분배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 지분 변경 등을 주장하거나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비주거시설(판매·문화집회 및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연면적, 건축규모, 층수, 일면, 지하주차장, 지하층, 총별 용도, 주차입구 위치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이 실시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경미한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안 권리를 사업주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을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다. ④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분배는 공유자분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따른 공유자의 행적관행의 규제 및 지침, 지적장리,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용오차 범위 내(외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비주거시설(판매·문화집회 및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지분배 증가 및 감소 시 대지분배의 정산은 사업주체가 판매하는 판매·문화집회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분으로 귀속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대지분배를 정산합니다. ⑤ 비주거시설(판매·문화집회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적 변경에 대하여 대지 지분 증가 또는 감소 등 발생 시 별도로 대지비율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시행은 분양계약 전에 사업주체로부터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받았으므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약관별 등의 조항을 들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당초 분양보증내용 변경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보증금액</th> <th>보증서 번호</th> <th>보증기간</th> </tr> <tr> <td>오피스텔</td> <td>64,431,600,000</td> <td>제 01292017-104-0000300호</td> <td>입주자모집공고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권서 포함)</td> </tr> </table>	구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오피스텔	64,431,600,000	제 01292017-104-0000300호	입주자모집공고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권서 포함)
구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오피스텔	64,431,600,000	제 01292017-104-0000300호	입주자모집공고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권서 포함)						
당초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위탁자 및 시행사인(주)에이엘유아이티,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주)에이엘유아이티 그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본 사업에서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주)에이엘유아이티는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신탁재산으로 분양과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분양 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채무 이행, 입주자권 지체상금 등)를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하는 위탁자 및 시행사인(주)에이엘유아이티가 부담하며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주)에이엘유아이티는 소유권보존인ยอม 및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2. 본 공동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권사 전에 발생한 하자보수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주)가 하며, 수분양자는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주)에이엘유아이티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대금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4. 수분양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주택법」과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계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에게 명확적으로 포괄승계 되어,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명확적으로 승계됨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주)에이엘유아이티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주)에이엘유아이티는 신탁계약에 의거 본 물건에 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업정산 내지 신탁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주체는 위탁자 및 시행사(주)에이엘유아이티로 자동 변경되며 신탁사인(주)에이엘유아이티의 지위(채무)가(주)에이엘유아이티에게 명확적으로 이전되며, 신탁사인(주)에이엘유아이티는 매도자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의 매수자는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추 가								
설계관련 유의사항	주변개발현황 및 안내 개발사업부지 인근 이면천세상 주상복합 신축공사, 두산기슬빌 부지 마스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 개발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상 입지 가능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으며, 토지주 및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입지 가능한 용도로 개발될 있음.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보지 않는 놈, 듣지 않는 놈, 말하지 않는 놈을 유쾌하게 이겨라!

##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대화법

박봉수 지음 | 292p | 12,000원

이럴 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아쁠싸, 그때 그랬으면 안 됐!  
아, 억울해서 잠이 안 온대!

어색함은 줄이고, 대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질문의 기술!

1. 율리우스에 따라 질문한다
2. 상대방의 관점에서 질문한다
3. 관계지향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4. 개방형 질문을 자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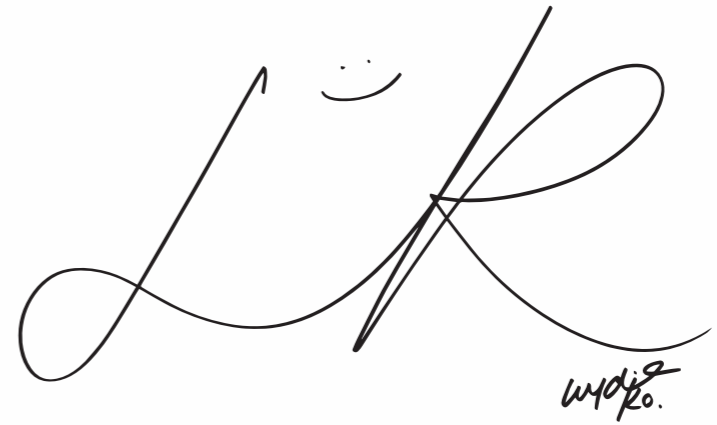
muhanbook7@naver.com / www.muhan-book.co.kr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1위

## 고급맛살 브랜드

2016 세계 골프랭킹 1위 / 리디아 고



# 크래미



금융사의 꽃? 은행원 인기 예전 같지 않네...

# 은행 이동 KB카드 직원들 뿔났다

**‘KB금융그룹 인력교류’ 신청  
카드 가겠다는 은행직원 115명  
은행 가겠다는 직원은 1명 뿐  
카드사 급여 높고 근무환경 좋아  
9명 강제로 보내자 반발 커져**

KB국민카드 일부 직원들이 KB금융지주가 단행한 계열사 간 인력교류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이동을 당해 반발하고 있다. 카드 직원들은 연봉이나 근무환경 등에서 은행보다 만족도가 높아 계열사 이동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KB금융그룹 인력교류' 공모를 내걸고 계열사 이동 신청을 받았다. 계열사 역량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취지였다. 계열사 간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인력교류 인원은 15명으로 한정했다. 문제는 은행 이동을 원하는 카드 직원이 공모 인원에 턱없이 미달했다는 점이다. 공모 기간 동안 카드 쪽 이동을 희망한 은행 직원은 115명이었던 반면, 은행 쪽 이동을 원하는 카드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KB국민카드 측은 같은 달 23일까지 이틀 더 공모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원자는 1명 더 늘어난 2명에 그쳤다. 그 뒤 사측은 공모 인원 15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회유에 들어갔다. 결국 같은 달 26일까지 공모기간을 재연장해 최종 9명이 은행으로 이동했다. 두 차례 공모기간을 연장했음에도 할당된 공모 인원은 못 채운 셈이다. 카드 직원들이 은행 이동을 꺼리는 것은 근무환경, 연봉수준 등에서 카드 쪽 만족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 한 관계자는 "은행의 조직문화가 보수적이라는 점과 급여도 카드 쪽이 5~10% 인푼 더 높다는 점

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따르면 1인 평균 급여액(지난해 9월 기준)은 KB국민카드가 6300만 원으로 KB국민은행(5900만 원)보다 약 7% 많았다. 지난해 말 이뤄진 KB국민은행의 28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희망퇴직도 은행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관측이다. 결국 KB국민카드 일부 직원들은 사측의 사실상 강제 이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사측 일부 상무, 부장은 직원들에게 면담, 전화의 방식으로 "승격을 시켜줄 테니 은행으로 이동하라"는 식의 회유를 했다. KB국민카드 내부 관계자는 "계열사 인력 교류의 핵심은 자율성인데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승격 약속을 시키면서까지 이동을 강제했다"며 "전화 받은 직원들은 커다란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단순한 권유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 국민銀 2800명 희망퇴직자 18일 확정

**신청자 막바지 심사... 대부분 수용 방침  
최대 36개월 퇴직금... 퇴직비용 8000억**

KB국민은행이 조만간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정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을 신청한 2800여 명에 대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대상자 명단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2011년 3244명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100여 명을 내보냈다. 국민은행은 부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부분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년 차 이상 은행원 1만3000여 명(9월 말 기준)의 5분의 1 수준이다. 희망퇴직 신청자의 남녀 직원의 성비는 비슷하며 연령대는 남성이 40~50대, 여성은 30~40대가 가

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남성은 과·차장 등 책임자급, 여성은 대리·계장 직급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임금피크 직원에겐 최대 27개월 이내, 일반 직원은 정년까지 잔여 근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6개월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직급별로 편차가 크다. 특별 퇴직금과 일반 퇴직금을 합쳐 부장급은 약 5억 원, 계장급은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올해 7000억~8000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은행권에 희망퇴직이 정례적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옛 외환은행의 중정년 특별퇴직 제도(10년 차 이상)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적용해 742명을 감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전직지원제도를 통해 310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했다. 신청자 대다수는 임금피크 대상자로 오는 5월까지 재취업 등의 교육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진행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접수를 16일 마감한다. 장효진 기자 js62@

## 삼성생명, 퇴직연금 적립금 20조 돌파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작년 12월 말 운용기준으로 20조 6265억 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치 중이다. 지난 2013년 10월 말 10조 원을 넘어선 지 38개월 만에 두 배로 확대된 것이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관련 임직원 120여 명은 적립금 20조 원 돌파를 기념해 연탄 2만 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경기도 과천시 팔발마을에서 실시했다. 사진제공 삼성생명

# 불완전판매 발목잡힌 AIA생명, 법인전환 뼈적

**2013년 텔레마케팅 채널 2000여건 적발  
금감원 '기관경고' 잠정 결정... 무산 위기**

AIA생명의 법인전환 작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금융감독원에 한국 지점의 법인 전환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 당초 시장에는 AIA생명이 지난해 말 법인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추측했다. AIA생명은 외국계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점 형태를 갖춘 유일한 곳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AIA생명의 법인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실제로 AIA그룹 홍콩 본사에서 한국 지점의 법인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IA생명의 텔레마케팅(TM)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발생 건이 금감원에 적발되면서 법인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A생명의 TM채널에서 약

2000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적발했다.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잠정 결정했다. AIA생명 입장에서 사실상 법인전환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대주주 요건을 갖출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및 별표4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장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차태진 AIA생명 AIA생명 홍콩 본사 관계자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비자 피해구제 의사를 밝히며 제재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IA생명은 한국 지점을 법인전환하려면 홍콩 당국의 승인이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A생명의 제재 수위가 기관주의로 감경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AIA생명이 법인 전환을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Sulwhasoo

雪花秀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윤에센스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니다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양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가 시간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 신한생명 “디지털금융 기반 상품·서비스 박차”

신한생명은 이병찬 사장 등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전략회의에서는 디지털금융을 기반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혁신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13일 신한생명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2017년 전략 목표인 '가치경영의 진화, Innovation 2017'의 달성을 위한 3대 세부추진 과제가 발표됐다. 세부추진 과제는 △유연성과 창의성 기반 '디지털금융 혁신' △고객까지 중심 '상품·서비스 혁신'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이다. 신한생명은 세부추진 과제 실행을 위해 먼저 디지털 기반의 혁신상품과 대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디지털전략팀을 신설하고 업계 최초로 생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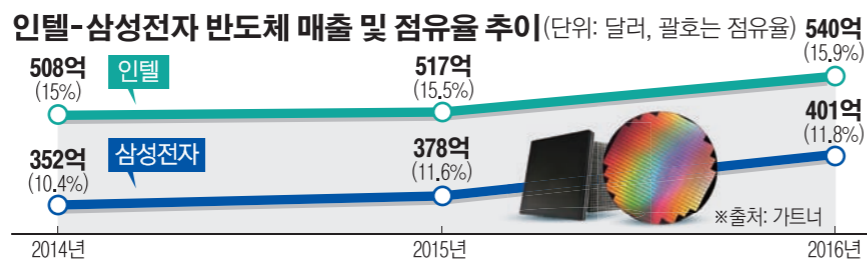


신한생명은 13일 천안연수원에서 '2017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유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고객 관점의 상품운영 체계화를 이뤄 고객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 인텔 주춤...삼성반도체 '통합 1위' 오를까

(메모리+시스템)

메모리반도체 부문 '슈퍼 호황기' 삼성전자가, 작년 매출 6.1% 성장 인텔은 4.5% 증가하는 데 그쳐 종합반도체 판도 지각변동 예고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 부동의 1위지만, 종합 반도체(메모리+시스템) 부문으로 범위를 넓히면 현재 2위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에 달하는 시스템반도체 강자 인텔이 15년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 같은 구도가 조만간 변경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도 고공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르면, 인텔은 전년보다 4.5% 증가한 540억 달러로 1위에 올랐다. 점유율은 15.9%다. 2위는 삼성전자로 6.1% 증가한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점유율은 11.8%다. 인텔과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15년 연속 1,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두 회사 점유율 격차는 최근 3년간 4%포인트 내외 격차를 꾸준히 보이고 있지만, 매출 성장률로 보면 삼성전자의 추격이 매섭다. 지난 2013년 무려 15%의 매출 성장률을 보인 삼성전자는 이듬해에도 11.5% 매출이 늘었다. 반면 인텔은

2014년 4.6%에 그쳤고, 2015년에는 오히려 1.2% 줄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가 6.1% 매출 성장을 보이는 동안 인텔은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는 슈퍼 호황기다. 지난해 D램 한물가격은 전주 대비 5.3% 상승 마감했다. 연초 서버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서버 모듈 가격도 1분기 중 25% 상승할 전망이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불씨가 당겨진 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추정 영업이익은 4조5000억~5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더 좋아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6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추정 영업이익은 약 21조 원이다. SK증권은 올해 반도체 부문 매출은 63조 원, 영업이익은 2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텔을 따라잡기 위해선 아직 조초 단계인 시스템 반도체 부문 실적도 받쳐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경우,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세계 반도체회사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애플빠 잡아라...삼성전자, 스마트워치 이어 TV도 iOS 지원

QLED TV '스마트 뷰 3.0', iOS 연동...IoT 생태계 구축 속도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워치에 이어 TV도 애플 '아이폰'과 연동될 수 있도록 베풀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도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홈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7년형 스마트 TV 'QLED TV'에 탑재된 새로운 TV앱인 '스마트뷰 3.0'은 자사 운영체제(OS)뿐 아니라 아이폰에 탑재된 애플의

OS인 'iOS'를 지원한다. 스마트뷰 3.0은 스마트폰을 가상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고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iOS 연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스마트워치인 '기어 S3'와 '기어S2' 피트니스밴드 '기어 핏'의 경우 애플 아이폰과 연동할 수 있게 개편했다. 연결성을 강화해 사물인터넷



주도뿐 아니라 자사 제품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 스타트

업인 '스마트싱스'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TV의 모든 신제품에 스마트싱스를 적용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을 IoT로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QLED TV에 iOS 연동을 시작으로 스마트싱스와 본격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부근 CE부부장(사장은)은 "TV를 시작으로 2020년에 모든 제품을 하나의 앱으로 제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 SKT 음성비서 '누구' 한달에 1만대 팔려



SK텔레콤의 음성 인식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판매량이 4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점을 고려하면 한달에 1만대 팔려나간 셈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누구는 지난해 9월 1일 출시 이후 최근까지 하루 평균 300~400대가 팔려, 누적 판매량이 4만대를 넘어섰다.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첫 탑재한 에어컨 '휘센 듀얼 에어퀵'을 16일 공개했다. 답라님이 적용된 '딥 씽큐'를 탑재해 스스로 학습하는 냉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 모델이 휘센 듀얼 에어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1일 국내 최초로 AI 음성 기기 누구를 출시했다. 음성명령이 하나면 개인일정, 날씨, 음악, 지식검색, 교통, 주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누구의 인기 요인으로는 할인 정책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꼽힌다. SK텔레콤은 초기 사용자 확보를 위해 정가 24만9000원인 누구를 출시 후 두달 동안 9만9000원으로 60% 할인 판매했다.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40% 할인된 가격인 14만9000원에 제공하면서 초반 사용자 확보에 주력했다. 누구는 출시 당시 멜론 음악 감상, 가전 기기 제어, 날씨 정보 등을 제공했지만, 11월에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배달음식 주문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달에는 IPTV Btv 음성제어, T맵 교통정보 안내, 위키백과 음성 검색, 라디오 기능을 더하는 등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의 80% 이상이 음악 감상에 집중됐지만,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음악 감상 비중이 50%까지 줄고, 기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철 없는 가전, 한겨울 에어컨 경쟁 돌입

가전업계가 한겨울 속 에어컨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스스로 사용자의 사용 습관, 위치 등을 학습해 작동하는 에어컨부터 바람 없이도 냉방을 가능케 하는 무풍(無風) 에어컨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이달 중순부터 공개,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LG전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에어컨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휘센 듀얼 에어퀵'을 비롯한 총 29종의 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휘센 듀얼 에어퀵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딥 러닝 기술인 '딥 씽큐(Deep ThinQ)'를 적용한 첫 출시 제품이다. 딥 씽큐 기반의 '스마트케어' 기능은 냉방

공간, 냉방 모드, 공기정정 가동 시점 등을 알아서 결정하고 동작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 등을 학습해 작동하는 에어컨 등 스스로 학습,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을 찾아내 쾌적한 바람을 내보낸다. 이를 통해 실내 전체에 냉방을 공급할 때보다 에너지를 최대 20.5%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인체 감지 카메라를 통해 사람 수와 위치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자동으로 설정, 맞춤형 바람을 내보내는 '스마트 듀얼 냉방' 기능도 갖추고 있다. 스마트 듀얼 맞춤형 냉방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 양쪽 토출구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한다. 이 기능은 전력 사용량을 최대 50.3%까지 줄여준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스탠드형 '무풍 에

어퀵'의 신제품과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무풍 에어컨은 기존 제품처럼 바람을 통한 냉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 없이도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는 '무풍 냉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출시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약판매 경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 전 실시하는 예약 판매는 에어컨 연간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한 해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으로 많은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면서 "올해는 고효율의 최신 에어컨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조현준 '3세 경영' 본격 스타트 IoT+중공업 '뉴 효성' 이끈다

작년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달성...오늘 선대회장 기일 맞춰 취임식 풍부한 실탄...공격적 인수·합병 첫 과제 "글로벌 기업 도약" 선언



조현준(사진) 효성 회장이 16일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효성은 오너 3세 경영 시대를 본격 열었다. 그간 효성을 이끌어 온 조석래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내려오고, 대표이사 직만 유지한다. 조 회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벽제기범 관에 있는 효성 창업주 고(故) 조흥제 선대회장의 묘소에서 추모식을 한 뒤, 서울 마포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오후 5시 경 취임식을 한다. 취임식 날이 효성 창업주인 고(故) 조흥제 선대회장 기일인 만큼, 취임식은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은 조 회장의 생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29일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으로 승진한 조 회장은 효성의 글로벌 도약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현실이 되는 영업이익 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공격적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호한 실적을 통해 확보된 '실탄'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도 관측된다. 특히 젊은 경영자답게 조 회장은 중공업 등 기존 사업에 더불어 IT를 적극

한 신사업을 도출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효성의 IT계열사인 효성ITX는 중공업 부문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해외투자 확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응우옌쑤언푹 총리를 만나 현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진출과 신규 투자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은 미국 예일대 정치학과 학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치학부 석사를 거쳐 일본 미쓰비시 상사와 모건스탠리에서 근무했다. 이후 1997년 효성그룹 전략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2007년부터 섬유·정보통신PG 겸 전략본부장(사장)을 맡아 섬유PG 부문을 현재 효성 그룹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 4차 산업혁명에 꽃힌 신동빈 롯데백화점 'AI' TF팀 신설

"올 사업계획에 반영하라" 주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주요 계열사 대표들에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사업계획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16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과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업이 주력인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에도 점목할 부문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접근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각 CEO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달 있었던 정책본부 임원 회의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소비계층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유통, 화학, 식품, 호텔서비스 등 롯데그룹 계열사 4대 산업군별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전담할 혁신조직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롯데백화점은 지시를 즉각 반영해 마케팅 부문 윤니채널 담당 산하에 'AI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팀장인 부장급 사원 1명과 과장급 사원 2명을 이동 발령했다. 롯데마트도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쿠팡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전문부를 상무부급 임원으로 영입,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무늬만 회사車' 규제...억대 수입차 판매 꺾여

1년새 17.8%↓...1만5103대 팔려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 법인차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업무용차 규제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법인차 판매는 8만396대로 집계됐다. 전년(9만5311대) 대비 15.6%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입 법인차 중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더 많이 줄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는 1만5103대로 전년(1만8370대) 대비 17.8% 줄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의 수입 법인차는 6만5293대로 1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고가의 수입 법인차 판매가 급감한 이유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가격	2015년	2016년	증감(%)
법인 등록	9만5311	8만396	-15.6
1억원 이상	1만8370	1만5103	-17.8
1억원 미만	7만6941	6만5293	-15.1
개인 등록	14만8589	14만4883	-2.5
1억원 이상	4476	5279	17.9
1억원 미만	14만4113	13만9604	-3.1
수입차 총계	24만3900	22만5279	-7.6

위해 지난해 업무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이 최대 800만 원으로 제한됐다.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 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하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호젓한 달빛에  
숨이 마칠 지경...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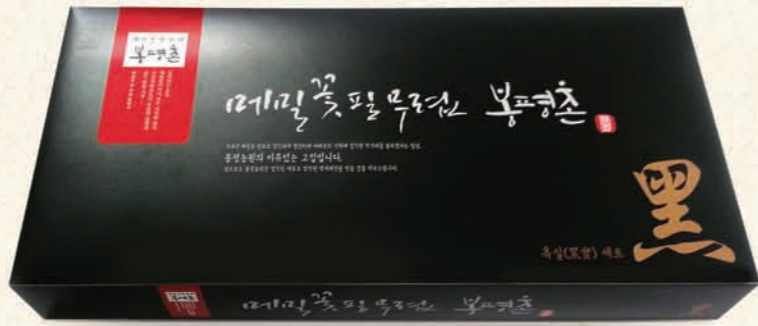
## GIFT SET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봉평촌 선물세트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우리 땅에서 정성을 다해 재배한 우리 메밀에 건강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 봉평촌 메밀선물세트(大)\_흑실(黑實)세트



제품사이즈 : 661 mm X 326 mm X 83 mm  
제품구성 : 메밀부침가루 800g, 찰수수부침가루 800g, 메밀가루 800g, 메밀쌀 600g, 메밀차 25개입 X 3개,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X 2개

### 봉평촌 메밀선물세트(中)\_백화(白花)세트



제품사이즈 : 470 mm X 315 mm X 74 mm  
제품구성 : 메밀부침가루 800g, 찰수수부침가루 450g, 메밀차 25개입 X 3개,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메밀소바 600g

### 봉평촌 메밀선물세트(小)\_청엽(靑葉)세트



제품사이즈 : 485mm X 315mm X 50mm  
제품구성 : 메밀부침가루 800g, 메밀미숫가루 900g, 봉평촌메밀국수2호 850g



‘다보스포럼’ 내일 개막

# ‘공공의 적’ 트럼프... 시진핑 독무대될듯

올 주재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보호무역·포퓰리즘 초점 맞춰 트럼프 정책 세계대표와 이견

시진핑 기후변화 등 개막 연설 글로벌 리더 지위 격상시킬 듯

스위스 다보스에서 1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보스포럼이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등 정치적 대격변 속에 흔들리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대표들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만큼 이는 다보스포럼의 근본적 취지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FT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은 국제무역과 투자를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다보스의 핵심 주제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꼬집었다. 트럼프는 모든 이슬람 교도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스위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베른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시 주석은 17일 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 필요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베른/AP연합뉴스

했다. 이는 다보스포럼이 올해 '다문화에 대한 열렬한 대화'를 핵심과제로 꼽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트럼프는 기후변화 개념이 미국 산업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의 일부로 중국인에 의해 고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보스포럼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로 가득차 있다. 20일 거행되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 선서는 트럼프와 다보스포럼의 대조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비추는 상징이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트럼프는 물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국 정상이 대부분 불참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시진핑의 독무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FT는 신인 미국 대통령의 부재 속에 시진핑이 국제 경제 시스템의 '책임 있고 소통하는 지도자'로서 다보스포럼에서 자리매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 측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인 지난해 5월부터 다보스포럼 참석을 준비했다. 당시 시 주석은 힐러리 클린턴의 미국 대선 승리를 예상하고 그에 앞서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승리로 시 주석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FT는 전했다. 시 주석은 17일 개막식 연설을 활용해 자유무역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슈에서 최근 수년간 이뤄진 진전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격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의 선더리 미국학 교수는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 체제를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하에서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잘나가던 中완다, 11년만에 역성장

부동산 부진... 작년 매출 14%↓

중국 최대 부호 왕젠린이 이끄는 다렌완다그룹의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비상장사인 완다그룹은 전날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해 그룹의 총매출이 전년보다 13.9%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매출이 2901억6000만 위안(약 49조85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매출은 약 2498억3000만 위안이 된다. 매출 감소폭은 앞서 완다그룹이 지난해 1월 예상했던 12% 감소보다도 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완다그룹 매출이 적어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전체 사업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 부문 매출은 지난해 143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완다그룹은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사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이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해외에서 영화관 체인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분야별 확장 전략을 펼쳤다. 또 쇼핑몰 등에서 부동산 소유권보다는 운영에 중심을 두는 '자산 경량화' 사업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완다그룹은 지난해 쇼핑몰인 완다플라자 50곳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그중 21곳은 '자산 경량화'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에 허덕이고 있으며 더 많은 고객이 전자상거래로 옮겨감에 따라 완다의 부채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달 현재 'Baa2'인 완다그룹의 핵심 자회사 다렌완다상업용부동산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60%가 과잉공급이 심각한 중소도시에 몰려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최소 800억 위안의 신규 부채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146년 전통 '링링 서커스' 고별 공연

동물보호 논란에 코끼리쇼 없어 티켓 판매 급감... 5월까지 공연

146년 역사의 미국 전통 서커스인 '링링 브라더스 앤드 바넘&베일리 서커스단(링링브라더스)'이 5월 고별 공연을 끝으로 해산한다. 높은 운영 비용과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로 링링브라더스는 마지막 공연 일을 결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서커스는 1800년대 중반 등장해 미국에서 주요 엔터테인먼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영화, TV, 비디오 게임 등이 등장하면서 서커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링링브라더스는 특히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여 고전했다. 14년 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에 범정 다름을 벌이던 링링브라더스는 작년 5월부터 쇼에 코끼리를 등장시키지 않았다. 줄리엣 펠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람들이 링링브라더스를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코끼리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케네스 펠드 최고경영자(CEO)는 "10년 동안 매출 감소가 이어지긴 했지만 가장 급격하게 티켓 판매가 고꾸라진 건 코끼리가 등장하지 않으면서부



링링 브라더스와 바넘 베일리 서커스단의 마지막 코끼리 쇼 무대. AP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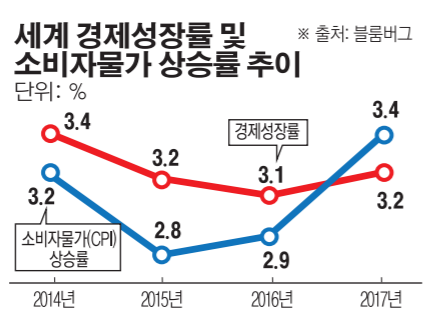
터였다"고 했다. 즉 코끼리가 서커스 공연에 등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정작 코끼리를 등장시키지 않자 발길을 더 끊었다는 의미다.

펠드 CEO는 이날 서커스단의 고별 공연 일정을 발표하면서 "나와 직원 모두에게 어려운 결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링링브라더스는 5월까지 애틀랜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에서 30회의 공연을 열 예정이다. 마지막 공연은 5월 21일 뉴욕 주 의 유니온데일 나스카운티 콜리세움에서 열린다.

500여 명의 직원은 서커스단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로 전락한다. 펠드 CEO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부 직원은 펠드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다른 회사로 옮겨간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글로벌 물가상승률, 4년만에 성장률 추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물가 전망 3.4%, 성장률은 3.2% 최근 국제유가 상승 영향 받은 신흥국이 물가상승률 부추켜



선 것도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에는 3.2%를 기록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을 부추기는 나라로는 신흥국들이 꼽힌다. 터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에서 물가상승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집트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7.4%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4%의 5배다. 러시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5.0%다. 또 세계 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라

를 보인다. 터키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8.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의 3배다. 브라질은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5.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0.8%의 6배를 넘었다.

신흥국 중 대부분이 원자재 생산과 수출에 기대는 경제 구조인데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감산 이행을 발표하면서 배럴당 55달러를 웃돌고 있다.

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일까지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5.7달러였다. 월간 기준으로 55달러를 웃돈 것은 2015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또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브렌트유 가격은 74% 치솟았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도 올해 들어 66% 상

승해,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도 치솟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5% 상승해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철강, 비철금속 가격이 각각 15.1%, 14.9% 뛰었다. 석탄 채취 정제 가격과 원유 천연가스 정제 가격도 각각 34.0%, 19.7%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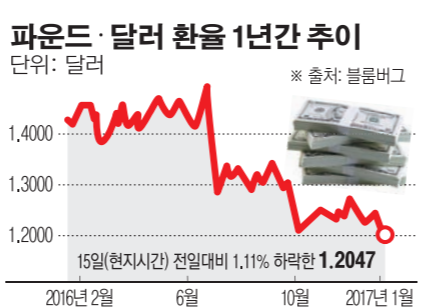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의미다. 물가상승률만큼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메이 총리, 브렉시트 구체적 계획 공개 예정... 英 '하드 브렉시트' 길 걷나

EU 단일시장 접근권 포기할 듯... 파운드화 가치 급락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 이후 반년이 넘도록 EU 단일 시장 이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반복된 브렉시트의 구체적 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또다시 EU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1.6% 급락, 1.1986파운드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2달러대가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메이 총리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늦어도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당시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 교역보다 이민 역할을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시장에서는 하드 브렉시트 우려가 고조됐었다. 이에 전당대회 직후 파운드-달러 환율은 1.1841달러까지 추락,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

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파운드가 급락한 배경에도 메이 총리가 있다. 선데이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영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관세동맹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EU 단일 시장의 회원국 지위를 잃더라도 국경 통제 권한은 완전히 회복할 것이며 유럽사법재판소(EJC)의 법률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피터 틸,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설

실리콘밸리 트럼프 지지 유일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던 피터 틸(49·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할 것 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4일(현지시간) 틸의 측근 공화당 3명의 발언을 인용해 틸이 2018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틸은 최근 일부 공화당원의 자문 위원들과 향후 출마에 대해 논의해왔다.

틸은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거물급 벤처 투자자로 통한다. 하지만 49세 기업가 출신인 틸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캘리포니아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탓에 그가 트럼프 후광을 등에 업고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율은 30%를 조금 넘는 데 그쳤고, 이 지역에 걸린 대의원(55명) 모두를 경쟁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가져갔다. 그러나 소식통은 틸과 그의 정치자문들은 여전히 주지사 선거 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틸은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측에 125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기부했다. IT업계의 유명 인사 중 트럼프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며 공계 지지 선언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실리콘밸리에서 틸이 여성과 소수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승리하면서 틸의 상황도 전세가 역전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MUSICAL

# 그날의 그놈들

양코르기념, 감사할인 30% (1/6 ~ 2/6 예매시 적용)

2017. 02. 07 - 2017. 03. 05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유준상 이견명 민영기 오만석 오종혁 양요섭 손승원 김지현 신고은 서현철 이정열 최지호 김산호  
박정표 정순원 이봉련 이진희 문희라 이지민 이다연 외

# “공동체와 나누는 삶이 진짜 행복한 성공”

##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입사원과의 대화’

### “경쟁·물질·권력 등에 중독되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 최근 기업 사회적 요구 증가...적극적인 책임 실천”

“성공을 해서 즐기고 누리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 경쟁, 물질, 권력 등에 중독되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신입사원들과 한자리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이들에게 절제와 나눔이 있는 ‘행복한 성공’을 추구하라고 당부했다.

SK그룹은 15일 “최태원 회장이 지난 13일 신입사원들에게 그룹 경영철학을 설명하고, 직장 상사이자 인생 선배로서 진솔한 조언과 격려 등을 하는 ‘신입사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위커킬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최 회장 외에 조대식 수석추진기획의장, 박성욱 ICT위원장(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글로벌

성장위원장(SK E&S 사장), 최광철 사회공헌위원장, 서진우 인재육성위원장, 김준 에너지·화학위원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등 주요 경영진 16명과 신입사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1979년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이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기업 경영철학 등을 설명하고자 시작한 이후, 올해로 38번째 이어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행복한 성공’에 대해 “경쟁, 물질 등에 대한 탐닉을 절제하고,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가 성공의 결과물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거론하며 “사회를 향해 ‘열린 SK’



“2017년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회장이 그룹의 경영철학과 신입사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와 ‘행복’을 나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20년 뒤의 기업은 단순히 상

품을 팔아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곳이 아니라 ‘경제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변화에 대비해 SK의 경영철학과 지배구조 등을 계속 진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감사원 첫 여성국장 장난주

### 인사

감사원 개원 68년 만에 첫 여성국장이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장난주(45·여·사진) 씨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장(고위감사공무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1998년 정부장관실에서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감사원의 첫 여성 출신 여성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장 국장은 환경문화감사, 공공기관 감사국 감사관, 산업금융감사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 국장은 다음 달부터 1년간 국장급 국의 교육 훈련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해 국장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장 국장은 “여성 감사관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일한 결과 고위감사공무원에까지 오르게 됐다”며 “후배 여성 감사관들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 정용선 새 리츠협회장 선임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13일 웨비나에서 플라센호텔에서 2017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정용선(사진)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를 제4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현아 국회의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 변정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제4기 회장단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임을 인건으로 올려 정 대표를 만장일치로 제4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부회장은 김대형 마스터투자운용 대표이사, 남혁우 경인지기리츠 대표이사, 김사로는 육심강 하나에이아이엔 투자운용 대표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정 대표는 “올해 협회는 리츠 대중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힘써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i@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승진)> △민원조사단장 엄광섭 △감사원 국장(국가인재개발원 파견예정) 최태원 △(국외교육훈련 파견예정) 장난주(전보) △국무감사국장 유병호 △심의실장 마광열 △IT감사단장 정성우 △공공감사운영단장 김광영 △심사관리관 송윤근 △감사원 국장(한국금융연구원 파견) 이철진 △(국외사무처 파견) 김순식 △(국립대학교 파견예정) 이영하 △(국립외교원 파견예정) 이남구 <3급(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정인소 △특별조사국 제4과장 황해식 <과장(신규보임)> △지방행정감사2국 부산사무소장 우동호 △공공감사운영단 감사결과이행관리과장 조대건 △감사원 과장(한국개발연구원 파견) 이상혁 △감사원 과장(세종연구소 파견예정) 최익성 △감사원 과장(통일교육원 파견예정) 김종성(전보) △인사혁신과장 이용출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정진석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김성진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전보의 △전략감사단 제1과장 박진원 △SOC·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조귀현 △ 제3과장 박시석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유병호 △ 제4과장 이주형 △ 제5과장 유종남 △행정·사국 제1과장 홍성모 △ 제2과장 임동혁 △ 제3과장 박재용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영관 △ 대구사무소장 김태경 △ 광주사무소장 양은전 △국무감사국 제1과장 구현모 △ 제2과장 손성근 △ 제3과장 황규상 △ 제4과장 이우홍 △특별조사국 제3과장 라윤준 △IT감사단 제1과장 김동석 △ 제2과장 류반규 △감사청구조사단 제1과장 정광명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중은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이상철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장 최현준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장 김영석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임서수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2팀장 강동선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담당관실 김윤미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장 김해정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 강재구 △ 교육운영2과 정광연(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정수영 △ 제3과 양문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한상연 △ 제4과 김택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 노희관 △ 제4과 서호성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 윤희연 △ 제4과 이광희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안병준 △ 제1과(1.18차) 유영 △ 제2과 김봉준 △ 제2과 신택균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박병호 △ 제4과 위응복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 오재도 △ 제4과 최규구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감사팀) 조석훈 △ 대전사무소(민원팀) 성예서 △ 부산사무소(감사팀) 김점균 △ 이경제 △ 부산사무소(민원팀) 정남식 △ 대구사무소(감사팀) 권영택 △ 대구사무소(민원팀) 전형준 △국방감사국 제1과 조길환 △ 제1과 김수원 △ 제2과 한상우 △ 제4과 김숙동 △특별조사국 제2과 안호선 △ 제4과 신영일 △ 배두한 △IT감사단 제1과 이동규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 박준용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이지웅 △ 혁신전략담당관실 박환대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실(1.18차) 조은정 △ 김대현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 백철우 △ 제2과 김홍철 △ 제2과(전산운영팀) 안인규 △운영지원과(사무행정팀) 안광승 △원장비서실 홍현식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강수호 식△ 김수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석진

◆교통노동부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이병성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손영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서범석 △ 군산지청장 이한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이우영 △교육부 파견 조우균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김상용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은미 <과장 전보> △정착금지해석과장 정재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안성용> △차별조사과장 정해용 △장애차별조사과장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 서수정 △인권교육운영팀장 이경우 △야동청 소년인권팀장 윤재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OECD 대한민국의책센터(파견) 유수현 <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홍대원

◆국민안전처 <과장급 전보> △안전정책실 비상대비기획과장 홍종완 △ 재난안전통신과장 박종복 △ 안전개선과장 이종수 △ 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재난관리실 재난방재관리과장 박병철

◆금융감독원 <국실장 직위 부여> △인재개발원 실장 홍영기 △금융상황분석실장 권경우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종수 △ 신용정보실장 임재욱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일용 △일반은행과장 김철웅 △신용감독과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과장 박상춘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 장상훈 △자산운용감독실장 김영진 △금융투자국

장 조예제 △회계감사국장 박관주 △회계기획실장 장석일 △보통소보자보호실장 박주식 △보통소보자대응단 실장 김동훈 △금융민원센터 국장 김동훈 △국무감사국장 유병호 △ 제4과 위응복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 오재도 △ 제4과 최규구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감사팀) 조석훈 △ 대전사무소(민원팀) 성예서 △ 부산사무소(감사팀) 김점균 △ 이경제 △ 부산사무소(민원팀) 정남식 △ 대구사무소(감사팀) 권영택 △ 대구사무소(민원팀) 전형준 △국방감사국 제1과 조길환 △ 제1과 김수원 △ 제2과 한상우 △ 제4과 김숙동 △특별조사국 제2과 안호선 △ 제4과 신영일 △ 배두한 △IT감사단 제1과 이동규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 박준용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이지웅 △ 혁신전략담당관실 박환대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실(1.18차) 조은정 △ 김대현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 백철우 △ 제2과 김홍철 △ 제2과(전산운영팀) 안인규 △운영지원과(사무행정팀) 안광승 △원장비서실 홍현식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강수호 식△ 김수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윤근 △기반시설국 교통기획과 정경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수출농업지원과장 신학기

◆기상청(승진) <고위 공무원단> △기상서비스진흥과장 장동원 △수도권기상청장 전준모(전보) △고위 공무원단 △예보국장 정준석 △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기후과학국장 김성국 △지진화산센터장 이미선 △부산지방기상청장 김남우 △4급 과장급 △기후정책과장 김현경 △지진화산연구과장 이덕기 △기상레이더센터장 권오영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모성업 △충북지역본부장 강대철 △제주지역본부장 윤동환 △경원지지원처장 현덕환 △안전기획담당관 이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이병기

◆산업은행 <본부장 선임> △자금시장본부 김선욱 △PR본부 김지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부장 채낙균 △지역본부장 선임 △경인지역본부 박근진 △충북지역본부 윤도

### 부음

▲강민석(레이저테크코리아 대표이사)·문정(NS홈쇼핑 영상디자인팀장)·태근(강수학원 원장)씨 부친상, 조원강(삼성SDS PR파트장)씨 장인상 = 14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7일, 02-2210-3421

▲조재희(한라 전무이사)씨 별세 =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263

▲박철훈(링크코리아 대표)씨 별세 = 15일, 성남시장례식장, 발인 17일, 031-752-0404

▲백성호(중앙일보 문화부 차장)씨 장인상 =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02-2258-5940

## 한화 울산공장에 날아든 한통의 편지

### 작년 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케미칼 ‘입사동기’ 8명 참변 사측 유가족에 장례절차 지원 “한화가족으로서 배려 감사”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준 배려에 한화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최근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정성들인 손글씨로 채워진 2장의 편지에는 한화케미칼에 대한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다. 편지 발신자는 지난해 10월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고로 숨진 유가족의 자녀였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2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 중 16명이 한화케미칼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16명 중 한화케미칼 전·현직 직원은 모두 8명으로 1979년 한화케미칼에 생선직으로 입사한 입사 동기였다. 재직 중에는 물론 퇴

직 이후에도 모임을 하며 우애를 다져오던 이들은 이날 역시 함께 중국 여행을 갔다가 오다 불의의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은 사고 당시 “회사에서 몸바쳐 일한 뒤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분들이 희생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케미칼에 재직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사택에서 자라며 한화케미칼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편지의 주인공은 이번 사고에서 보여준 한화케미칼의 이 같은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편지로 전했다. 또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진심을 보여준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유가족 모두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화케미칼 측은 “은퇴한 분들이지만, 회사를 위해 일하셨던 분들이었던 만큼 회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취임 2주년 맞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올해 내수기업 2600곳 수출 지원”

### 작년 유망 중소기업 발굴 통해 해외 온라인 실적 1541억 달성

“올해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창업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채운(사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시기 소회와 올해 기관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중기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 편의점 등 민간 대형유통망과 협업해 왔다”며 “지난해 유망 중기제품을 발굴해 국내외 유통망 진출 지원으로 225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외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바이어 알선 등 지원으로

1212억 원, 수출 온라인 지원 강화로 1541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정부 수출지원사업 참여,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 수출 사업화 자금을 신설했다”며 “지난해보다 1000개 증가한 2600개 내수기업 수출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날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연수 등 인력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인제 육성형 자금을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성공 패키지 지원 전용자금 200억 원을 신설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준호 기자 gradually@

## 린튼 소니엔터 CEO 퇴임후 ‘스냅챗’ 새동지

### 후임 인선될 때까지 공동대표로

마이클 린튼(사진) 소니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메시징앱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니는 이날 린튼이 내달 2일자로 CEO직에서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 후 린튼은 스냅의 이사회 회장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다만, 후임이 인선될 때까지 향후 6개월간 소니 엔터테인먼트 공동 CEO로 남기로 했다.

린튼의 스냅 행(行)은 이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냅은 이르면 3월경 기업공개(IPO)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시 스냅의 기업가치는 200억~250억 달러(약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린튼은 스냅의 초기 투자자이며 스냅 설립자인 에반 스피겔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버크 NBC유니버설 CEO는 “에반은 스냅챗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IPO를 통해 스냅은 진화하게 될 것이며 마크를 영입한 것은 매우 절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중 한어병음 창시자 언어학자 저우유광 별세

“한어 병음의 창시자”인 중국 원로 언어학자 저우유광(周有光)이 14일 타계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망이 보도했다. 향년 112세다. 저우 선생은 14일 새벽 베이징 세하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저우 선생은 청말 광서제 32년인 1906년 1월 13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에서 태어나 20세기 격동의 중국사를 온몸으로 겪었다.

중국 최초의 서양식 대학인 상하이 세인트존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 월가의 금융회사에서 일한 뒤 1949년 신중국 건립 후 조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중국어를 로마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현대식 발음 표기법인 한어병음을 만들며 중국의 문명퇴치와 현대 중국어의 보급, 국제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트럼프와 푸틴은 '절친'이 될 수 있을까



##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전 주러시  
아대사·한반도평화교  
섭본부장



러시아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해킹을 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 이래 미국 내 반(反)러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안한 대로 보복 조치를 내놓았고 트럼프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오바마의 조치 그리고 러시아의 행보라는 일련의 파고 속에서 대러 정책 방향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오바마는 러시아의 해킹과 그간 러시아가 미국에 취해온 전반적 행태의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35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였다. 뉴욕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러시아 공관의 휴양 시설도 정보활동 혐의로 폐쇄했다. 오바마는 대응 조치 중 일부는 비공개라고 하였는데, 이는 푸틴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임을 수주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의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오바마는 미국 민주제도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바마는 러시아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트럼프를 겨냥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모든 미국인은 러시아의 행위에 경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는 이제 더 크고 좋은 사안으로 넘어갈 때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기관장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비등하는 여론 앞에서 러시아의 해킹을 믿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움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며 트럼프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당초 러시아 외교부는 종래 하던 대로 상호주의에 따른 맞대응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외교관 35명의 추방을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고 공개 언급할 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은 러시아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발표되며, 이처럼 외무장관이 여차여차한 내용을 건의하였다고 중도에 언급하는 일은 드물다. 마치 극적인 다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복선을 까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푸틴은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여 극적 반전을 과시하였다. 푸틴은 오바마의 결정은 라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손상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하면서도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관대함을 보이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 물론 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푸틴으로서의 떠나가는 오바마 행정부와 티격태격하기보다 들어오는 트럼프 정부를 향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으로써 트럼프의 운신을 편하게 해주자 한 것이다. 트럼프도 이러한 푸틴의 대처를 높이 평가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향후 마-러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만해 보였다.

고 내용이 공표되었다. 푸틴의 지시에 의해 해킹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으며 트럼프의 사생활이나 사업 관련 정보도 러시아 측에 의해 활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들이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의 적나라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러시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러시아 언론과 여론은 “그동안 빈번하게 나오던 이야기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개입설을 부인하고 미국 내 해킹 논란은 선거에 전 쪽이 핑계를 찾는 차원이며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느냐보다 유출된 내용이 사실이나 여부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러시아 여론

제대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그중에는 안드레이 루고보이라는 인물도 있다. 그는 2006년 런던에서 의문사한 반(反)푸틴 인사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암살범으로 영국 정부에 의해 지목된 바 있다. 루고보이는 현직 의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그 자체로 러시아의 해킹, 인권 탄압, 미 외교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취해진 것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한 후의 대러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에 제약을 가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정작 트럼프가 취임한 후 마-러 관계는 어찌될 것인가.

물론 아직 판단하기 이르고 지금까지 나온 근거들은 단편적인 조각들이 뿐이므로 자료가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보여주는 추이는 있다. 무엇보다도 해킹 등 러시아 관련 사안에 대한 트럼프의 언술에 조급성 주류 여론이 반영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해킹을 부인하였다가 더 좋은 사안으로 넘어갈 때라고 하였고, 정보기관을 불신하였다가 정보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고, 받은 후에는 해킹을 시인하였다. 또한 최근 진행된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스 지명자도 상당히 강한 대러 정책 시각을 피력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기존 워싱턴 정가의 견해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나아가길 방향이 이쪽이라면 마-러 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좀 보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방향은 러시아가 호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 측에서 시의적절하게 러시아 쪽의 인식과 움직임을 포착하여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보인다면 좋겠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보면 그렇게 되리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과거 탈냉전 초기 러시아가 국내적 혼란 속에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대외 관계를 풀어나가자 하였을 때 미국은 낙관론과 자기중심적 사고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바마가 제안했던 대러 리셋 정책도 러시아 측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돌이켜 보면 마-러 모두 강대국으로서 자기중심적 성향이 있다는 점이 제약 요인의 하나였다.

푸시킨 소설의 주인공 실비오는 백작이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쓰기 위해 찾아간다. 다시 결투가 이어진다. 그런데 실비오는 마지막 한 발을 백작 뒤에 걸러 있는 그림을 향해 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실 세계의 마-러 관계도 그렇지는 두 고를 일이다. 현실은 소설보다 엄혹하므로 푸틴이 두 번씩 실비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푸틴의 이러한 대응은 통상적인 것은 아니나 러시아 식 행태상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소설 '마지막 한 발'에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이자 명사수인 실비오는 어느 백작과의 결투 국면에서 먼저 쏜 상대의 총탄이 자신을 비껴간 후, 자신이 쏜 차례가 되자 상대를 겨냥한다. 이제 백작의 목숨은 실비오의 손가락에 달려 있다. 그런데도 백작이 태연한 모습을 보이자 실비오는 지금은 총 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후 결투 현장을 떠난다. 그 후 수년 동안 유보한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위해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진영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정보기관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 후 트럼프는 러시아의 해킹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그는 해킹에 대한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언을 그렸다.

이러 미 정보기관이 트럼프에게 제출한 보

러 해킹 부인하다 “더 큰 얘기 하자”  
“정보기관 못 믿겠다”더니 보고받은  
“해킹 인정”...입장 계속 바뀐 트럼프  
푸틴은 오바마 보복에 맞대응 않고  
트럼프와 새로운 관계 맺으려 하지만  
전통적 양대 강국, 앞날은 그리...

중에는 만일 그러한 해킹을 러시아 민간이 했다 하더라도 그간 서방 언론이 러시아에 대해 거의 정보 전쟁 수준으로 매도해왔던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들어 추가 조치를 취하였다. 러시아 고위 수사 관계자와 여타 인사를 인권 탄압과 관련하여



## 일흔셋 노년에 지은 '음식디미방' 여성이 처음 쓴 획기적인 요리책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 데 간신히 썼으니 이 못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이 책을 베껴가되 가져갈 생각 말며, 부디 상하지 말게 간수해 쉬 떨어버리지 말라.”

이 글은 안동 장씨(安東張氏, 1598-1680)가 남긴 당부의 말로 '음식디미방' 끝부분에 나온다. 장씨가 '음식디미방'을 지은 시기는 일흔셋 무렵이었다. 노년에 완성한 요리책이 딸자식들에게 소중하게 전해지길 바란 장씨의 소망은 그 정성대로 이루어졌다. 오늘날까지 고이 전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장씨는 1598년(선조 31) 경북 안동에서 장흥효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장흥효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체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학문에 힘을 쏟은 학자다. 장씨는 아버지로부터 글을 익히고 경전 등도 배웠다. 시도 잘 지었고, 글씨체 또한 호방하고 근세였으며 그림도 뛰어났다고 전한다.

장씨는 열아홉에 아버지의 제자 이시명(1590-1674)과 혼인했다. 당시 이시명은 사별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이 있었다. 이시명의 둘째 부인인 장씨는 딸 둘과 아들 여섯을 낳았는데, 그중 셋째가 학자로 이름을 떨친 갈암 이현일이다. 장씨는 혼인 후 친정과의 끈을 놓지 않아 일 년에 한 번씩 친정을 방문했다. 그러다 어머니 상을 당하자 친정에서 생활하며 아버지 재혼을 성사시킨 후야 돌아왔다. 서른다섯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친정 식구들을 본인 집 근처로 데려와 돌보았고, 친정의 조상 신주를 모셔와 봄가을로 제사도 올렸다.

남편 이시명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오랑캐에 짓밟힌 일을 분개하며 은둔 생활을 했다. 그러자 장씨가 “당신은 이미 세상에 숨어 집에서 생활하시니 아들 손자들에게 시와 예를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세월을 그냥 보내시나요?” 하고 충고했다. 그러자 남편 이시명은 은둔 생활을 접고 후학 양성에 나섰다.

장씨는 말년에 앞서 소개한 '음식디미방'을 완성했다. '규곤 시의방(圍壘是議方)'이라고도 불리는 이 요리서에는 총 146가지의 음식, 술 빚는 방법 등이 들어 있다. 과일 등 음식을 보관하는 요긴한 방법도 있어 17세기 양반가의 생활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생활백과사이다. 디미방은 왕이 음식을 먹던 곳을 뜻하는 고어(古語)로, 고어에서는 '지'를 '디'로 발음했기 때문에 지미방(知味方)이 디미방이 된 것이다.

사실 '음식디미방' 이전에도 몇몇 요리책이 나왔다. '수운잡방'(김수, 1530년경) '도문대작'(허균, 1605년) 등으로 조리 경험이 없는 남성들이 한자로 쓴 것이다. 이에 비해 '음식디미방'은 직접 음식을 만드는 여성이 한글로 지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문을 구사할 줄 알던 장씨가 여성(딸)들을 위해 선택한 이 같은 시도로 우리는 귀중한 문화 유산을 갖게 되었다. 정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070 시니어 매거진 Monthly Magazine

**BRAVO My Life**

01 1월호 JANUARY 2017 창간 2주년 기념 특대호

국민배우 '최불암' 학교 밖 아이들과의 인연

합리적 시니어 리더, 함익병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창간 2주년 기념 설문조사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분석

이봉규의 숨겨진 '최고의 건강관리' '건강은 무엇으로 살까?'

우리 세대 이야기 '살날 음식'에 대하여

시니어 고 (초혼)을 노래하다 이봉규의 숨겨진 '최고의 건강관리' '건강은 무엇으로 살까?'

60대 연금술 전략

#### COVERSTORY 무엇으로 살까?

PART1. 별거 부부 vs 별난 부부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은 우리의 축복"

PART2. 시니어타운 부부 "커뮤니티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PART3. 탐나는 인생 무대 위 부러움은 찰나, 니만의 행복은 오래오래

PART4. 결혼 2막 "아내는 제 인생의 큰 선물"

PART5. 백년해로 부부 "아직 끌어안고 자요"

#### 창간 2주년 특별기획

###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

ACTIVE SENIOR LIFESTYLE SURVEY

#### 문학관 답사기 황순원 문학관

소년, 소녀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

어린 시절, 소설을 읽다 사랑에 빠져버린 첫 작품이 바로 <소나기>다. 푸르른 무밭하며 살개천 돌다리길,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소나기처럼 온몸에 녹아들었다. 애잔하지만 환상적인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소설 <소나기>.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따뜻한 감적인 그곳에 찾아갔다.

#### 신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이봉규의 숨겨진 '최고의 건강관리' '건강은 무엇으로 살까?'  
인생, 열대만 해도 성공하는 게요

파동광부 민식기씨  
수천만 말 앞에서 내가 파낸 것은 지름길

#### 맞춤형 건강 도시락으로 새해 식단 관리하기

그저 가볍게 한 끼 때문이 아니라 내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맞춤 도시락이라면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을 빼놓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 '바비드박스'에서 찾은 맛과 건강,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계기로 본지 제작에 참여한 김홍관 시니어 인턴기자도 직접 체험하며 맛본 도시락 후기까지 담아냈다.

#### 이봉규 '숨겨진 데이트' 70대가 되어도 최강 동반 소리를 듣고 싶다

자기애로 돌볼 땀은 장은숙은 고독한 생활을 즐겼다. 고독했기에 행복했고 그래서 늙지 않는 것일까. 올해로 60세인 장은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최강 동반을 자랑하며 '함께 춤을 추어오'와 '당신의 첫사랑' 등 여전히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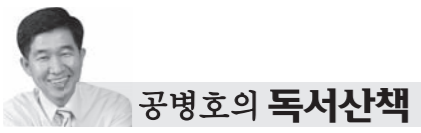
동년가지의 페이지  
강신영·백외성·박종섭·정원일·박해경 동년가지

박원식이 만난 귀촌  
경북 예천군 풍양면 시골에 사는 전용숙씨 부부

우리 세대 이야기  
성경애·김종영·이경숙·신용재·조왕래 동년가지

가급적 소박하게, 가급적 고요하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공병호의 독서산책

고승철 '여신(女神)'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듯이 좋아하는 책의 장르도 다르다. 서평 코너도 서평자의 선호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껏 논픽션을 소개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서평자 자신이 논픽션보다 픽션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언론인 출신인 고승철의 '여신(女神)'은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10명이 넘는 인물들이 20개의 주제에서 제각각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소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재미있다. 먼 나라 이야기나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그런 인물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무대도 유럽의 다양한 도시들을 배경으로 전개될 정도로 스케일이 웅장하

클레오파트라 왕관, 한국에 오다 스물살통 마담의 화려한 변신 등 목차에서 소재목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작가가 어떤 글을 선택할까라는 호기심을 느끼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성과 이런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과 신기함이 앞선다. '클레오파트라 왕관, 한국에 오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픽션다운, 너무나 픽션다운 문장이 등장한다. '갈레누스 성부님께서 고향 페르가몬(소아시아 지방)에서 숨을 거두실 때 '1900년이 지나면 머나먼 동방의 귀인이 방문하여 나이 100세 넘는 자손이 그를 접견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소' 귀하가 그 귀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소만... 성부님이 코리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어진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다. 가치창출과 무관하게 억지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포퓰리즘이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기보다 당장 꿀물을 주는 단기 처방을 의미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억지 공공 일자리 만들기다. 모든 개인이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 기업의 가치창출로 국가가 성장하고 가치분배인 부가가치로 기업이 성장한다. 기업 부가가치의 합이 국가의 GDP요, 기업 부가가치의 분배가 개인의 급여다. 개인은 일을 통해 창출한 가치 일부를 급여로 분배받으면서 기업과 상생한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플러스의 가치창출을 하는 국가가 당연히 성장한다. 가치창출과 분배 과정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면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진짜 일자리다. 정책이란 가치창출과 분배의 공정한 룰을 의미한다. 내가 기여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나의 수입이기에, 사회적 가치의 적도인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원칙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임금은 생산성이 아니라 신분에 비례한다. 대기업의 임금과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는 각각 50%와 30% 수준이다. 불공정한 임금 격차가 100만명의 청년 실업과 100만명의 일손 부족이라는 한국의 일자리 패러독스의 원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란도 의미가

없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분제 국가가 거의 없는 이유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도전을 통한 혁신과 열심히 일하는 효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절반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국가 인적자원을 왜곡시킨다. 국가는 기업가적 혁신과 효율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단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가짜 일자리를 만든다. 과도한 공무원으로 몰락한 그리스를 보라.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부탁하는 일자리 창출도 의미가 없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만들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자리는 허상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대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일자리는 스타트업(startup) 벤처가 스케일업(scale up)하면서 만들어진다.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 발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규제를 풀고 기득권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 진짜 일자리 정책이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가치창출과 분배의 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가 기록된다. 역사상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국가는 기득권에 의해 굳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자.

기자 출신 작가의 아주 재미있는 소설

다. 작가는 파리특파원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언론인이다.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연신 떠올랐다. "세상 경험 가운데 버릴 만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일찍부터 소설가로 입문해 집필하였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글이란 생각 때문이다. 다양한 인물 군상들은 그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디에선가 만났을 그런 유형의 인물일 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창작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주인공 때문에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작기도 자신이 언론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소설에 입문할 수 있었던 소회를 이렇게 밝힌다. "늘그막에 문학에 입문한 게 다행이었다. 이런 경험적 자산 없이 열정만으로 문학청년 시절을 보냈다면 골방에 쪼그리고 앉아 재능의 한계를 통탄하며 얼마나 고뇌했겠는가?"

사실이다." 황당한 내용이지만 하지만 픽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의 상황이고 가공의 문장이다. '알미온 X'에서 미국상, 주요소, 버스회사 등 주로 현금 장사로 중견그룹에 오른 총수 탁종팔은 '콩나물값 쪼기 마라!'가 가훈이다. 그가 가족들에게 일갈하는 말 속에는 남도 출신 저자 특유의 사투리가 마음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돈 벌기가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애길라꼬만(아끼려고만) 하는데 남한테 이롭게 해봐라, 더 큰 돈이 자주 들어온다. 이기라이것(이)라! 절약하모(하)만 가난은 멘(번)하졌지만 부자는 될 수 없는 가라" 외모가 연연인만큼 딸 탁하연에게 머리 좋은 과외선생에게 시집가라고 말하는 탁희정의 말투는 일품이다. "허허, 이 가시나가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고? 길게 말할 거 없다. 니 신랑감이 다!" 픽션에서 무슨 큰 지식이나 교훈을 기대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런 배경에, 이런 인물 설정에, 이런 묘사가 가능할까라는 놀라움을 주는 소설이다. 재미를 구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오늘의 인물 1월 16일 이육사

글과 행동으로 끝까지 일제에 항거한 민족시인

진짜 선비에게 변절이란 상상할 수 없다. 그저 일편단심일 뿐이다. 이들은 '예의'로 행동을 규제하고 '염치'로 마음을 단속했다. 일제 강점기 시인 이육사(1904.5.18~1944.1.16)는 그런 선비였다. 당시 많은 문인들이 변절한 데 반해, 그는 글과 행동으로 끝까지 일본에 항거한다. 본명이 원복(源福)이었던 이육사는 어려서부터 형제간 우애가 깊고 용모가 단정한 선비 형으로, 한 번 사귀면 생사를 같이할 정도로 의리와 신의가 두터웠다고 한다. 그가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항일 무력 독립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면서다. 당시 그곳에

서 군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이 일어나자 검거되어 2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때 수감번호 264번을 따서 호를 육사(陸史)라 했다. 이후에도 1929년 광주학생 운동, 1930년 대구 격문사건 등에 연루되어 모두 17차례 옥고를 치른다. 혹독한 감옥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진료를 고민하다 시와 글을 통해 새로운 항일 운동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시를 썼다. 1930년 이활(李活)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첫 시 '말'을 발표하고, 1937년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정포도와 '절정' 등을 김광균·신석초 등과 함께 장간한 동인지 '자오선'에 선보인다. 그 후로 한글 단입이 실패하자 한시만 쓰는 식으로 항일 시들을 내놓는다. 1942년에 마치 광복의 날을 준비하는 사립처럼 사실상의 유교(遺囑)인 '광야'를 발표한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해방 1년 전인 1944년 1월의 새벽,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간 중국 베이징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한다. 김대환 편집위원 daehoan3000@



'노후 경유차 폐차' 시행 사흘 만에 중단 "세금은 다 어디에 쓰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지만, 사업 시행 사흘 만에 업무가 중단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12일 경기도 포천과 수원시에서 해당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시의 조기 폐차 예산 조기 소진 예상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한다"고 기재됐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

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수원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억 원 줄였다. 환경부는 예산이 남은 지자체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이 빠져들며 사업 중단 사례는 이어질 전망이다. 네티즌은 "도대체 세금은 이런 데 안 쓰고 어디에 쓰는 걸까?",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산물", "미세먼지 주범이나 좀 잡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펀드는 필수라는데...", "적금은 어떤 상품을 들어야 하지?", "신용카드는 어떤 걸로 만들어야 하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제테크는 그야말로 '알쏭달쏭'입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일수록 제테크는 더욱 필요한 법이죠. 자칫하다간 나도 모르게 돈이 줄줄 새기 마련이니까요. 새해 돈 모으기 결심을 한 여러분을 위한 '깨알같은' 제테크 방법입니다. '통장 쪼개기'에서 '작심삼일 제테크', '봉투 생활법'까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필수 팁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UFhkmR>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총리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메리츠자산운용 CEO

한국과 유럽 선진국의 퇴직연령 중 어디가 더 높을까? 막연하게는 유럽 선진국의 퇴직연령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이 훨씬 더 높다. 한국의 공식적인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72세까지 일을 한다. 더구나 한국의 65세 인구의 50%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한다.

반면에 유럽 선진국은 공식적인 퇴직연령보다 더 일찍 은퇴를 한다. 프랑스는 65세가 공식적인 퇴직연령인데 비해 평균 60세면 퇴직한다. 가장 높은 연령까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한국, 왜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도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인 걸까?

그만큼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노후 자금의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다. 한국은 노후 대비책 부족으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노동이 일하는 데에는 익숙하면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개 노후 준비에 있어 주식 등은 위험하고,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함께 일해야 한다. 아직 본인의 자본이 은행 예금이나 원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다면 자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 늘어난 평균수명, 노후준비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도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원금보장형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미국은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50% 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2%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다. 인간의 수명은 100세로 늘어나지만 퇴직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퇴직을 하고도 5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한다. 장수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더구나 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느라 못했다고 말한다. 지식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나의 상식으로는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일로 여겨진다. 자식들이 자라서 부모의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길어진 수명을 제약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려면 나에게 수입이 있을 때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 몇 가지 조언을 하면, 첫째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경제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둘째, 과소비를 주식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나의 자본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장 큰 낭비를 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 셋째는 소득의 10% 이상을 노후 자금으로 비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은퇴 이후를 위한 자금이라면,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단기적 투자 습관과 원금 보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마라톤은 한결같은 페이스로 뛰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에 너무 빨리 뛰면 쉽게 지치고, 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남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뛰어야 완주할 수 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다. 길게,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금부터라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노후에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녀들에게도 밤늦게까지 입시학원을 다니며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의 주식을 사서 함께 토론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빨리 시작할수록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하미미의 고공비행

자본시장부 차장

# 코스피를 박스피로 만드는 것들

지난 12일 코스피가 고공비행하며 시장에 한껏 기대감을 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8%(11.97포인트) 상승한 2087.14로 마감하며 2090선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7월 16일 2087.89를 기록한 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35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12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며 200만 원을 넘어설 기세였다.



이날 '5년 만의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희망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흐름으로 볼 때 투자 심리가 안정화돼, 올해 코스피지수가 지난 5년간 머물러온 '1840-2190 선 박스피'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흥분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루 만인 13일 코스피는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과 '대장주' 삼성전자 하락 반전 여파로 2080 선을 내줘 버렸다. 결국 코스피는 단단한 멧집보다는 여전히 내·외부적 요인에 흔들리는 한계점을 보여준 셈이다.

우선 달러 움직임에 코스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여파로 달러 강세가 전개됐다. 달러 강세(원화 약세)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탈을 부추긴다.

물론 최근 들어 달러 강세 움직임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월 한국은행은 행총재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달러는 당분간 강세가 전망되며 하반기 들어 서야 다소 진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코스피의 아킬레스건이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마다 그 뒤에는 늘 삼성전자가 있었다. 삼성전자에 의존한 중시 구조가 사실상 지금까지 박스피 탈출을 힘들게 했던 걸림돌이었던 셈

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에 의존한 지수 상승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약세라는 부작용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실상가상으로 지난해 11월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놓고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 국정 불안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데다 대선 시점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내내 불확실성의 연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외 이슈에도 우리 증시는 늘 불안하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물론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중국의 한류 금지령 등 예상치 못한 변수는 국내 증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올해 미국이 예고한 2-3차례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정치적 상황 등 불안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안정적인 투자 심리가 기대되는 코스피 시장이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2011년부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웬만한 약재는 견뎌내는 멧집을 카운 뉴우 증시처럼 말이다. jscs508@

**이정록** 서울네트워크 전무이사

### 상장 후 IR가 중요한 이유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CEO들은 다들 IPO(기업공개)를 꿈꾼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는 CEO나 CFO가 너무나 많다.

최근 모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IR 활동을 잘하는 기업이 주가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당수 기업은 실적만 좋으면 투자자들이 알아줄 텐데 굳이 IR나 PR 활동을 돈을 들여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지난해 당시가 수행한 30여 개에 이르는 IPO 기업 중 연간 IR나 PR 활동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맺은 업체가 3-4개사에 불과한 것이 방증일 수도 있다. 물론 그중엔 팀을 갖춰 체계적으로 IR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항상 정보에 목말라 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의 공시나 홈페이지를 자주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탐방을 하곤 한다. 또한, 증권 담당 기자들도 기업에 관한 뉴스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에 전화해 취재 활동을 하


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IR 담당자나 PR 담당자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한다.

상장 기업의 적극적인 IR 활동은 어찌 보면 의무사항이다. 기업과 투자자를 이어 주는 기교 역할로 IR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다. 기업의 실적이나 주요 경영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본 투자자들은 주가에 반영하고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단순히 기업의 업무 태만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침묵하며 투자자들이 알아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담당자를 두고, 더 나아가서는 팀을 갖춰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항상 정보에 목말라 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의 공시나 홈페이지를 자주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탐방을 하곤 한다. 또한, 증권 담당 기자들도 기업에 관한 뉴스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에 전화해 취재 활동을 하

**윤필호** 자본시장부/beetlebun@

### '대전환' 과도한 기대는 금물



증권가는 2017년 채권에서 주식의 시대로 접어드는 '대전환(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격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 경기 진작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대전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2-3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그동안의 채권 호황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답답한 행보를 보였던 국내 증시의 박스권 돌파 가능성과 함께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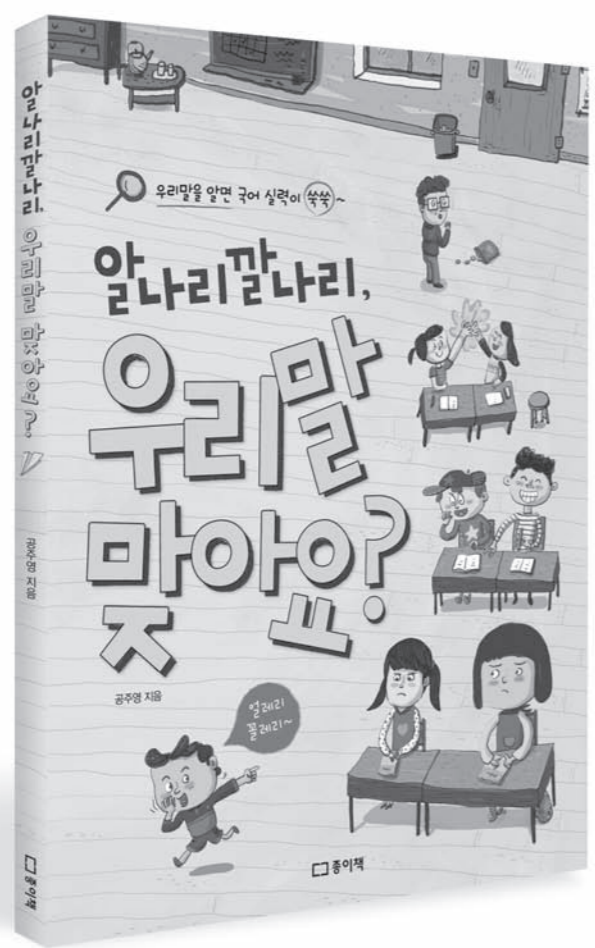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증시 회복의 전제 요건부터 의문 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당장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국내를 비롯해 해외 각 중정치적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기업 지배구조 이슈 역시 각종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발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콘텐츠 제한정책) 조치는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정부가 저금리를 부추긴 탓에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또 어떤가. 연착륙 탈출구를 마련하더라도 서민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스럽다.

물가는 전정부지로 치솟았다.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www.numbeo.com)는 15일 한국의 과일·쌀 등 식료품 12개 항목과 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세계 119개국 가운데 상위 10%에 속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산유국의 감산 합의 영향으로 전곡 휘발유 평균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현실은 아직 장밋빛 보고서는 이르다고 말한다. 채권의 하락세가 주식의 상승세를 담보한다는 식의 전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투자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거 옮겨가는 대전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 스스로의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주영 지음 | 178×240mm | 11,200원

##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생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쓱쓱 우리말 퀴즈>
-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우리말 배우러 가 볼까?



## 실속·정성이 한가득 실~프라이즈

### 김영란법 영향... '중저가' 대세

정유년 설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은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민족 최대 명절이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곤 한다. 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갑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 지인들에게 드릴 선물로 어떤 것이 좋을지 망설여진다. 특히 최근 수년간 경기가 안 좋아 뼈대살인 살림에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은 적으면서도 실속도 있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찾고 있다.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부담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어서 유통업계는 5만 원 이하 중저가의 실속형 선물세트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 롯데백화점은 상품군별로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다. 홈플러스 역시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설 대비 5%포인트, 전체 90%로 늘려 총 2000여 종을 준비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 중 5만 원 미만의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한다. 롯데주류는 올해 정유년 설을 맞아 명절 선물용으로 73년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청주 백화수복을 선보였다.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의미인 백화수복은 제례용 선물로 인정받는다. KGC인삼공사는 독감과 미세먼지 이슈로 건강 관련 선물세트를, 한미약품은 설 명절 음식과 손님맞이에 피로해진 컨디션 회복에 최적인 고향량 비타민B 복합제를 설 선물로 제안했다.



## 5만원 이하 호주 와규·랍스터 등 '가성비 갑' 세트 어때요?

### LOTTE DEPARTMENT STORE

#### 실속 선물세트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고민하는 많은 고객을 위해 상품본부 바이어가 실속과 품질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추천했다. 전국적으로 명품 한우로 사랑받는 황성 한우는 넓은 목초지에서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이에 황성 한우 실속세트(1등급 불고기, 국거리·산적·장조림 각 0.6kg, 총 2.4kg, 24만 원)는 명절에 차례상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기 있는 품목으로 구성했다. 또 영광 범성



포 전통의 염장기법인 천일염으로 건수한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해 해풍으로 건조한 범성포 굴비세트(참조기 21cm 이상 10마, 20만 원)는 품질이 우수하다. 김영란법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맞이해 롯데

대백화점에서는 상품군별로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다. 특히 이번에는 호주 와규, 랍스터 세트 등 해외에서 바이어가 직접 상품을 기획한 상품을 새롭게 구성했다.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가 뛰어난 호주산 와규에서 명절에 필요한 부위를 엄선해 구성된 실속 세트(불고기·국거리 각각 0.6kg, 총 1.2kg)는 4만 9000원이다. 또 고급 식재료인 랍스터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최대 랍스터 전문기업과 연계해 처음으로 랍스터세트(랍스터 500g 2마리, 전복 30g 이상 8마리)를 4만 9900원에 출시했다. 이밖에 3대가 이어온 부산 최고의 어묵인 삼진 어묵을 3만 원, 국내의 명차 9종으로 구성된 상계 월드 커플렉션이 4만 원, 정광장 여담세트가 4만 7000원에 판매된다.

## '미니 프리미엄' 한우·떡갈비 등 200여종 소소한 품격

### HYUNDAI DEPARTMENT STORE

#### 설 선물세트 상품전

현대백화점은 오는 27일까지 '2017 설 선물세트 상품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국 15개 점포에 설 선물 특선 매장을 열어 200여 개 선물세트를 진열·판매하며,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설 선물세트 상품전에서는 양국화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급 상품을 늘리고, 소포장 상품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 실속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30%가량 확대했다. 지난해 설에만



판매량이 25% 신장한 한우 순우리 실속 세트(15만 원)는 지난해보다 20% 늘려 1만 2000세트를 준비했고, 연양식 소불고기 세트(12만 원), 광양식 소불고기 세트(15만 원) 등 기존 양념육 세트에 한우 떡갈비세트 난(13만 원), 송월관 떡갈비

세트(9만 9000원),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6만 원) 등의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늘린 7000세트를 준비했다. 프리미엄 한우 세트 품목도 늘렸다. 어묵을 끓여 먹이는 전통 사육 방식으로 화식사료로 사육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최고급 한우인 '화식 한우'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5% 늘려 준비했다. 또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소포장 선물 세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명인명촌'의 인기 선물세트를 선별해 소포장한 명인명촌 미소 세트 5종을 올해 처음 내놨다. 9만 원에 판매하는 '명인명촌 미소 합(合)'의 소포장 상품인 '명인명촌 미소 합 세트'는 양평 해바라기 3년 간장(200ml), 신안 박성준 토관전일염(120g), 강진국영에 새우볶음고추장(120g) 등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4만 8000원이다.

## 한우·굴비·배 지역대표 특산물 엄선, 고마움을 전하세요

### 신세계백화점

#### 우리 농수산물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로 한우와 굴비, 배 등 다양한 우리 농수산물 선물 세트를 내놨다. 신세계 상품본부장이 직접 추천한 선물 세트라 더 눈길이 간다. 신세계는 목장한우 만복(50만 원), 목장한우 오복(35만 원), 목장한우 수복(28만 원) 등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청보리 사료를 먹으며 키운 지정목장의 한우선물을 선보였다. 해발 80m, 탁 트인 구릉지대에 있는 전남 영광 청보리 한우목장은 국내 최초의 환경친화 축산목장으로 매년 '1+' 등급 이상의 최고급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동해안 어업 전진지인 구룡포산 마른 굴비 만복(80만 원), 다복(50만 원), 오복(25만 원) 등도 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큰 바다에서 불어오는 짙고 짭짤한 해풍, 여

기에 태백산맥 줄기에서 부는 시원한 산바람이 더해져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어는 과정을 반복해 맛있게 건조됐다. 특히 더 맛있는 굴비를 만들려고 친환경 명품 소금인 영백염전 천일염만을 사용해 위생적이며,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협) 시설에서 가공돼 믿고 먹을 수 있다. 소담 배 세트(11만 원), 배 세트 만복(10만 원), 신세계 성환 배 세트(8만 원) 등 1906년부터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오로지 배만 생산하고 있는 성환 안양굴 배 선물도 있다. 성환 안양굴 배가 유명한 이유는 천안이 강수량이 적당하고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적은 자연환경, 배수가 원활한 모래가 많이 섞인 황토 등 하늘이 내린 명품 산지의 조건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

## 상품권부터 구두·핸드백·지갑까지... 온 가족 '취향저격'

### Kumkang 금강제화

#### 가족 구성원별 선물 제안

정유년 설 명절을 앞두고 금강제화가 가족 구성원별 실속 있는 선물을 제안한다. 은퇴 후 외부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부모님을 위해 금강상품권을 추천한다. 금강상품권은 구두, 캐주얼화를 비롯해 가방, 핸드백, 지갑,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전국에 있는 금강제화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한 권 종류로 구성됐으며, 선물을 고르는 부담은 덜어주고 받는 분들에게도 만족감을 선사해 매년 인기 선물로 꼽힌다.



금강상품권은 전국 400개 금강제화, 브루노발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취업 시즌을 앞둔 남동생에게는 '리갈201' 구두를 추천한다. 지난해 비즈니스 캐주얼 트렌드 확산에 맞춰 출시한 리갈 201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높은 판매량을 이어 오고 있다.

리갈 201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세련된 디테일이 더해져 스타일로 면접을 위한 포멀한 정장은 물론 캐주얼한 의상에도 잘 어울린다. 또 고급스러운 소재와 금강제화만의 최고급 수제화 제법인 굿이어 웰트(Goodyear Welt) 방식으로 제작해 일반 구두보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누나를 위해 핸드백은 '쿠보 루체', 지갑은 '까르파 루스' 등이 어떨까. 브루노발리 2017 S-S 시즌 신상품인 '쿠보 루체'는 브루노발리 시그니처 아이템인 '쿠보'를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핸드백으로 구조적인 형태와 세련된 컬러가 특징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대학교 입학 준비하는 20대가 있다면 렌드롬바 캐주얼 슈즈를 추천한다. 2017 S-S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출시한 '렌드롬바 하이드로(Hydro)'는 눈습, 경량, 투습, 쿠션, 항균항취 등 12가지 기능성은 살리고, 디자인은 한층 젊고 세련되게 보완했다.

## 어르신들 좋아하실 6년근 홍삼이 캡슐·젤리로...

### 롯데제과

#### 헬스원 황작

롯데제과는 롯데 헬스원 '황작' 을 올해 설 선물로 추천했다. 황작 브랜드는 '황작홍삼농축액', '황작홍삼캡슐', '황작홍삼젤리', '황작수·환세트' 등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제품은 '황작홍삼농축액'과 '황작홍삼캡슐'이다. 더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혈압컨트롤엔(나토키나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헬스원 황작은 품질 좋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다. 황작농축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롯데의 특허받은 공법으로 Rg3 함량을 자사 홍삼 농축액과 비교해 약 5배 높이고, 사포닌 함량도 1.7배 높여 효능에 있어 신뢰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Rg3는 홍삼 한 뿌리에 극소량만이 함유된 물질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탁월한 성분이다. 이에 Rg3는 중장년층 소비자들과 홍삼 마니아들 사이에 일찍부터 입소문이 나왔다.

헬스원이 선보인 '혈압컨트롤엔(나토키나제)'도 명절 선물



로 인기다. 나토키나제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되며, 자연발효 식품인 '낫'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든 건강식품이다. 이는 식약처가 인정한 원료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혈전을 용해, 혈류를 원활하게 해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며 "대사질환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40~60대 중장년층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한 성인들에게 좋다"고 말했다.

## 정관장 명품 홍삼과 만난 아로니아·블루베리·석류



#### 굿베이스

KGC인삼공사는 독감과 미세먼지 이슈로 인한 건강 관련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KGC인삼공사는 '굿베이스'라는 자연 소재 브랜드를 지난 2010년 론칭했다. 천연 과즙 등 자연소재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니즈에 비해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KGC인삼공사의 신뢰도에 힘입은 '굿베이스'는 2015년 23%, 2016년 28%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KGC인삼공사의 자연소재 브랜드 '굿베이스'는 소재별 세계 유명 주산지에서 자란 원료를 엄선해 만든다. 대한민국의 홍삼부터, 폴란드산 아로니아, 미국산 블루베리, 이란산 석류 등 재배환경에 적합한 주산지에서 자란 원료를 사용했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안전성 관리로 유명한 정관장의 원료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여 290여 가지가 넘는 안전성 검사를 통해 제품



을 관리한다.

굿베이스의 제품은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이 함유된 홍삼담은 시리즈와 자연소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이 키운 시리즈로 나뉜다. 홍삼담은 시리즈에는 아로니아, 석류, 흑마늘, 산수유, 블루베리, 헛개, 푸룬, 참꽃 8종이 출시되었으며, 자연이 키운 시리즈에는 아로니아, 배, 홍삼을 담은 제품이 있다.

KGC인삼공사는 믿을 수 있는 자연 소재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니즈에 맞는 소재를 찾아 지속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갈 예정이다.

## 손으로 만든 소면·나트륨 없는 햄 저렴하고 알찬 선물 골라보세요



#### 선물세트 56종



오투기는 올해 설을 맞아 실용 만점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설날 선물세트 56종을 선보였다. 오투기는 명절을 맞이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알찬 구성과 실속을 겸비한 다양한 가격대의 오투기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번에 준비한 선물 세트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골라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한 '특선 선물세트' △100% 질 좋은 참깨만을 골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고소한 대한민국 1등 참기름 '참기름 선물세트' △고기 함량이 높고 합성이 질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오투기햄 선물세트' △남태평양 바다의 신선함과 먹을수록 감칠맛 나는 '참치 선물세트' △8번 숙성시켜 손으로 늘여 만든 '오투기 수연소면 선물세트' △자연의 건강함을 전하는 '홍삼 선물세트' 등 1만~5만 원대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올해 설에는 전복죽, 새송이쇠고기죽, 참치죽 등 다양한 오투기죽으로 구성된 '오투기죽 선물세트'와 국내 최초 비 가공기술로 가바 함량이 약 10배 높은 '가바백미 선물세트'도 선보였다. 오투기는 소비자들 인제든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오투기 홈페이지와 오투기몰에도 선물세트 전자 카탈로그를 구성했다.

오투기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장기불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1만~2만 원대의 중저가 선물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년에 비해 빠른 설 명절로 식품 선물세트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고, 부담 없이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오투기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국산 벌꿀에 재워 만든 절편홍삼 홍삼농축액에 당귀까지 든 양갱



#### 연홍선물세트



농협홍삼 한삼인은 새해 설 명절을 맞아 '2017 새해는 3(參)가지만 지켜주세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삼(參)으로 활력을, 소중한 삼(參)으로 감사를 그리고 행복한 삼(參)으로 웃음을'이라는 테마로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2월 3일이다.

다른 원료를 일절 넣지 않고 6년근 100% 홍삼만을 진하게 농축해 제조한 홍삼정프리임, 한삼인만의 저온 추출법으로 36시간 정성껏 달여 사포닌 파괴를 최소화한 홍삼순액골드, 주원료인 홍삼과 부원료인 녹용, 당귀, 산수유, 찹쌀을 대한 형태로 제조한 심의환 등 주요 제품을 1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농협홍삼은 특히 명절 선물 세트의 핵심인 연홍선물세트를 추천했다. 한삼인의 연홍세트는 100% 국산 6년근 홍삼을 36시간 저온 추출한 홍삼순액골드, 국산 벌꿀에 홍삼을 재워 만든 봉밀절편홍삼, 국산 6년근 홍삼 농축액에 결명자와 당귀, 백출 등이 들어가 향이 깊고 진한 홍삼양갱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형태로 홍삼을 즐길 수 있는 연홍선물세트는 실속 있는 구성을 갖춘 한삼인의 선물세트 제품으로 명절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부모님과 친척 등에게 선물하기 안심맞춤이다.

농협홍삼 한삼인 제품은 한삼인몰, 전국 가맹점, 백화점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농협홍삼 마케팅담당자는 "여러 가지 홍삼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연홍선물세트도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추억을 지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참치캔 색다른 맛 연어·골뱅이캔 모음



#### 설 선물세트 200종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는 실속 있는 가격에 건강을 담은 가성비 최고인 '동원 설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인다.

동원F&B는 설선물세트 전체 물량 중 판매가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대비해 약 10% 이상 늘렸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참치세트와 복합세트의 물량을 각각 16%, 20% 늘렸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참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참치선물세트는 동원F&B를 대표하는 선물세트다. 참치세트로는 최고 인기세트인 '동원튜나리츠 100호'와 참치캔, 리츠, 카놀리우 등 다양한 제품이 혼합된 '동원 스페셜 5호' 등이 올 추석 시즌 주력 세트다. 또 일반 참치캔에 아재 참치, 고추참치가 더해져 참치캔에 충실한 세트 선호도 주요 선물세트다.

동원F&B는 '참치캔', '캔햄', '식용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복합선물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한다. 또한 전통적인 인기상품인 '양반김선물세트'와 함께 연어캔, 골뱅이캔 등을 담은 이색 선물세트, '동원 건강참치 명작 100호' 등 고급 선물세트 등도 선보인다.

아울러 동원F&B는 '천지인 홍삼'과 'GNC' 브랜드를 통해 건강식품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는 고급 캡슐홍삼인 '천지인 메가사포니아 골드', '천지인 홍삼정 예작', 'GNC 남성건강세트', 'GNC 여성건강세트' 등이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이번 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명절 문화와 선물세트 시장의 변화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이라며, "실속있는 중저가 가공식품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와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인공첨가물 없는 과일주스... 명절선물 베스트셀러

### 롯데칠성음료

####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실속있는 소비성향을 반영해 1만 원부터 1만4000원 사이의 가격대로 구성된 총 6종의 중저가 세트, 전통 및 살린 보자기 및 보석함 이미지 등을 활용한 고급 포장재를 사용했다.

델몬트 트루주스 과일들뜰 선물세트는 건강한 주스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설탕과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일 자체의 천연당으로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 구성했다. 기존 오렌지, 제주감귤 100% 주스에 요즘 대세인 자몽 100% 주스를 추가했다. 제주감귤만을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들뜰 3본입 세트'와 다양하게 프리미엄 주스를 즐길 수 있는 '오렌지들뜰·자몽들뜰·제주감귤들뜰 3본입 세트' 등 2종이다.

델몬트 페트 선물세트는 1.5L 용량 제품으로 한국 전통의 맛이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의 포장재로 꾸민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상자에 담긴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 등 2종이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180ml 소용량 병에 담은 '오렌지·포도·망고 소병 12본입 세트'와 '오렌지·포도·감귤 소병 12본입 세트' 2종으로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실속에서 건강까지 짝 챙길 수 있는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감사의 마음과 정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빛 무늬에 거북 손잡이... 황실의 품격 갖춘 식기

### (H) 한국도자기

#### 황실·므아레



한국도자기는 '가치 소비'형 설 선물도자기를 제안한다. 74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국내 대표 생활 자기 기업 '한국도자기'는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취향별 맞춤형 도자기 선물을 추천했다.

양가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급스러운 식기 또는 머그 제품이 적합하다. 식사를 하거나 차 또는 음료를 마시는 때 순간 선물을 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멋진 선물이 될 수 있다.

'황후의 식탁에 어울리는 최고의 품격을 갖춘 식기'라는 콘셉트로 제작된 한국도자기 '황실'은 골드 컬러의 완자살 무늬로 전통미와 모던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된 '황실' 뚜껑받침머그는 컵뚜껑 위에 거북 모양의 손잡이를 얹었고, 그 안에는 황금빛 낙관 모양으로 만수무강을 새겨 넣어 '무병장수와 '부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양가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제격이다.

2017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는 실속 있게 구성된 한식기 세트를 선물하는 것도 좋다. 한국도자기가 새롭게 출시한 '므아레' 가정용 차림세트는 한국 식문화에 맞는 식기로 매일 먹는 가정식 집밥의 상차림을 완성해준다.

보다 '가치' 있고 '유니크'한 선물을 고민한다면,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콜레보레이션 제품인 프라우나 '지오메트리카(Geometrica)'를 추천한다. 세계 3대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알렉산드르 멘디니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프라우나 '지오메트리카'는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 ‘청탁금지법 맞춤’ 5만원 짬갈비·굴비세트 어때요

### LOTTE Mart

#### 실속 선물세트

롯데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김영란 법과 소가구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패션용품 등 설 선물세트 280여 품목을 판매한다.

5만 원 이하의 축산 선물세트가 올해 처음 등장해 ‘미국산 냉동 짬갈비 세트(미국산 냉동 본갈비 1kg×2)’를 5만 원, 조기 대신 민어를 사용해 굴비를 만든 ‘민어 굴비 세트(5마·1.5kg 내외, 국산염)’를 4만9800원, ‘남성·여성 양말 2족세트(에어워크·기라로쉬)’를 각 5900원에 판매한다.

또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고려해 1등급 이상의 한우 등심과 채끝을 날개 소포장으로 담은 선물세트인 ‘한우 간편 포장 스테이크 세트(한우 등심·채끝 각 200g×5, 냉장)’를 23만5000원, ‘한우 간편 포장 정육 세트(한우 국거리·불고기 각 200g×5, 냉장)’를 12만5000원에 선보인다.

전국 유명 산지의 사과와 배로 구성된 ‘天下第一 귀하게 자란 큰 사과(사과 12입)’와 ‘天下第一 귀하게 자란 큰 배(배 9입)’



를 각 8만8000원, 최근 수입과일 소비 확대 트렌드를 고려해 ‘이스라엘 자몽과 스위트 세트(자몽 6입, 스위트 6입, 이스라엘 염산)’를 2만9900원에 판매한다.

늘어나는 수입 맥주 수요에 맞춘 전용 잔을 포함한 수입 맥주 선물세트도 준비해 ‘징타오 전유안 세트(징타오 330ml×4병, 잔 1개)’를 1만 원에, 미국 대표 크래프트 브루어리 중 하나인 시에라네바다 맥주 3종으로 구성된 ‘시에라네바다 샘플러 세트(시에라네바다 IPA, 페일에일, 토페도 각 355ml, 잔 1개)’도 2만3700원에 선보인다.

## ‘홍삼 먹은 사과’ ‘저탄소 배’ 이색 콜라보 세트

### Home plus

#### 이색·신선플러스 농장 세트

홈플러스는 오는 29일까지 전 점포에서 2200여 종의 설 선물세트를 마련해 판매한다. 홈플러스가 준비한 설 선물세트는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이색 선물세트’, ‘콜라보 선물세트’, ‘신선플러스 농장 선물세트’, ‘뜻밖의 플러스 선물세트’ 등 다양한 테마로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점을 고려해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설 대비 5%포인트, 전체 90%로 늘려 총 2000여 종을 준비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 중 5만 원 미만의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한다. 사부사부용 소고기와 육수를 함께 담은 ‘사부사부 냉동세트’, 연양·광양식으로 양념한 ‘전통 양념 소불고기 냉동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색 선물세트로는 사과에 홍삼농축액을 삼투압 방식으로 넣어 홍삼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홍삼 먹은 사과세트’(5만9000원),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으로 농자재 투입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키운 배를 담은 ‘저탄소 배 세트’(4



만4900원), 1+ 등급 안심 한우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 송로버섯 소금을 함께 담은 ‘안심 한우 고메(gourmet) 냉장세트’(28만 원)가 있다.

이외에도 신선플러스 농장 선물세트로는 깨끗한 청산도 앞 바다에서 큰 사이즈의 전복을 선별한 ‘청산도 대왕 활전복세트’(15만 원), 당도가 우수하고 맛이 좋은 특대 사이즈 사과만 선별한 ‘귀한 사과세트’(6만9000원), 볶짚, 콩, 옥수수 등 자연식을 곁들여 키운 한우로 고소한 풍미를 지닌 ‘화식한우 등심 혼합 냉장세트’(23만2000원), ‘오색 곡물 건버섯 혼합세트’(4만4500원)가 있다.

## 슈퍼베리 아로니아·천연꿀... 소중한 분께 건강 선물하세요

### 롯데홈쇼핑

#### 슈퍼푸드



롯데홈쇼핑은 설 연휴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슈퍼푸드들을 집중 편성하고, 물량을 대거 확보해 선보인다.

롯데홈쇼핑은 17일 폴란드산 유기농 슈퍼베리 아로니아만을 사용한 ‘슈퍼베리 아로니아 파우더(15만9000원)’를 판매한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체리 등 베리류 중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아로니아만을 사용한 제품으로, 칼슘, 비타민, 아연,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18일, 19일에는 그리스 직수입 천연꿀인 ‘아티키 그럭허니(10만9000원)’, 200년 역사의 구강건강 대표 제품인 ‘핀란드 자일리톨 크리스탈(19만8000원)’ 등 해외 유명 건강기능식품을 최다 구성으로 선보인다.

20일에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건강기능식품들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효도선물이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식품 브랜드 ‘정관장’의 ‘홍삼정 마일드(39만3000원)’를 비롯해 ‘산들의 음식’으로 불리는 카카오의 영양을 그대로 담은 ‘마추픽추 카카오닙스(12만9000원)’와 지난해 해외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던 롯데홈쇼핑 인기 건강기능식품 ‘팔레오 슈퍼씨드(15만9000원)’를 판매한다.

특히, ‘팔레오 슈퍼씨드’는 풍부한 영양소 함유는 물론 주부고객에게 맞춤형 패키지 및 홈쇼핑 최다 중량으로 선보여 전 방송 매진이라는 기네스를 기록한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꼽힌다. 그 밖에 롯데홈쇼핑 단독 상품이자, 한의사 이경재 원장의 20년 노하우를 담은 ‘이경재 더원한 녹용진액(15만9000원)’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자, 귀한 소재로 인식되는 녹용을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번 특집방송 마지막 날인 22일 2회 걸쳐 방송한다.

## 행복·건강·희망 상징 ‘복 에디션’ 韓·中·대만 소비자 마음을 꽂~

### AMORE PACIFIC

#### 프리미엄 샴푸 려 세트



아모레퍼시픽 한방 프리미엄 샴푸 브랜드 ‘려’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한국과 중국 고객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기원하는 ‘복 에디션’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2종으로 선보인 ‘복 에디션’은 출시 40일 만에 10만 개 이상을 판매했다. 올해의 경우, 한국, 중국, 대만 3개국에서 동시 출시한다. 특히, 이번 ‘복 에디션’은 퓨전 동양화 아티스트 이소영 작가와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행복’을 상징하는 꽃과 잉어, ‘건강’을 기원하는 소나무, ‘희망’을 의미하는 해 그림을 넣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 에디션은 지난 한 해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두 가지 라인인 ‘자양윤모 탈모방지 라인’과 ‘함빛 극손상케어 라인’의 샴푸와 트리트먼트로 구성된 기획세트도 출시된다.

‘자양윤모 탈모방지 샴푸’는 인삼추출물 제조 신기술로 사포닌을 10배 강화시킨 고려인삼 성분이 함없이 빠지는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가꿔준다. ‘함빛 극손상케어 샴푸’는 제주 발효동백오일이 손상된 모발을 집중 케어해 부드럽고 윤기나는 모발로 가꿔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아모레퍼시픽 려(呂) 관계자는 “2016년 한 해 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소영 작가와 협력해 디자인한 ‘복(福)’자를 제품에 새겨 기획세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려(呂)의 ‘복 에디션’은 1월 초부터 국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주요 마트 및 드리스토어에서도 한정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가격은 ‘려 함빛 복 에디션’ 2만1900 원대, ‘려 자양 복 에디션’ 2종은 각 2만8000원대다.

## 주름 사라지고 속부터 촉촉하게 이제 피부 나이를 되돌릴 시간

### LG 생활건강

#### 안티에이징 화장품



LG생활건강의 오후, 후, 이자녹스는 안티에이징 기능을 담은 설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오후는 베이비 콜라겐을 담아 별처럼 빛나는 어린 피부를 완성해주는 ‘오후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 2종 세트’를 선보인다. 오후의 에이지 리커버리 에센스는 아기 피부에 많은 베이비 콜라겐을 담아 노화로 인해 사라진 별 모양 피부 패턴을 다시 띄워주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또 궁중화장품 브랜드 후는 2017년 설 명절을 맞아 후의 상징이자 고상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패키지에 후의 프리미엄 도탈케어 라인인 천기단 라인의 제품을 담은 귀한 기쁨의 왕후세트를 선보인다. 왕후세트는 후 천기단 라인의 제품들로 구성된 최고급 한방 스페셜 세트로, 귀한 분께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담아 바치는 선물세트다. 특히 이번 설 세트에는 천기단 라인의 밸런스부터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크림까지 모든 기초 제품과 함께 색조 제품인 에센스 쿠션과 베이스를 함께 담아 기초부터 색조까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자녹스 테르비나LX’는 재조합 태반 핵심성분을 함유해 태초의 건강한 피부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프리미엄 라인이다. 올해 설에는 테르비나 LX 라인의 스킨, 에멀전, 크림 정품 외에도 테르비나 엠블 오일과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오리지널 밸런스 솔루션이 내장된 기획세트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번만 아니라 브랜드 초고가 제품인 테르비나 더폼드 크림 증정 품까지 내장됐다.

## 6년근 홍삼 성분으로 부모님 모발을 탄력있게

### 애경

#### 동의홍삼 샴푸세트



애경은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설날 선물세트 ‘동의홍삼’ 샴푸세트를 출시했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은 활력을 채우는 홍삼의 붉은 에너지를 담은 프리미엄 한방뷰티 브랜드 ‘동의홍삼’을 설 선물세트로 제안한다.

동의홍삼은 농협한삼인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100% 국내산 6년근 홍삼농축액과 우리 땅에서 자란 씨앗 혼합추출액이 함유된 프리미엄 한방뷰티 브랜드다.

동의홍삼 선물세트는 홍삼의 영양을 붉은 에너지로 형상화해 붉은 색상을 감각적으로 디자인에 활용, 기존 생활용품 선물세트와 달리 고급화시켜 선물의 가치를 높였다.

또 두피 관리에 특화된 기능의 제품을 1만 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구성해 두피모발 관리에 고민이 많은 중년층, 부모님, 은사님을 위한 선물로 제격이다.

동의홍삼 선물세트는 △동의홍삼 프리미엄 생활용품 선물세트 1호와 2호 △한방명품 1호와 2호 등 총 4종으로 출시됐다.

동의홍삼 프리미엄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샴푸·린스의 본품 구성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고급스러운 홍삼 디자인과 우아한 색감을 패키지에 담아 가치와 품격을 더했다. 한방명품 세트는 샴푸, 린스, 치약, 비누 등의 생필품을 1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했다.

동의홍삼은 국내산 6년근 홍삼을 저온추출법으로 다스려 사포닌 파괴를 최소화해 홍삼의 유익한 생리 활성성분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다. 또 흑미, 보리, 강남콩, 귀리, 현미 등 ‘전연씨앗 콤플렉스’ 처방으로 한방 특유의 기능성을 높여 모근 강화와 두피, 모발을 촉촉하고 매끄럽게 관리해 준다.

## ‘디자인·보온·내구성’ 3박자 갖춘 겨울철 핫 아이템

### Schneider

#### 몬타폰 스탠다드 다운 재킷·롱다운 점퍼



라이프웨어 브랜드 ‘슈나이더’가 설날 연휴를 앞두고 디자인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패션 아이템을 명절 선물로 제안했다. 슈나이더는 이번 F·W 시즌 히트 상품 ‘몬타폰 스탠다드 다운 재킷’과 ‘몬타폰 롱다운 점퍼’를 설 선물로 추천한다.

몬타폰 스탠다드 다운 재킷은 출시 직후 ‘2016 하반기 히트 상품’에 선정될 정도로 고객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제품은 슈나이더 공식 홍보 모델인 배우 조정석이 직접 착용하면서부터 대중의 눈도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디자인과 보온성, 내구성까지 모두 갖추어 라이프웨어를 지향하는 슈나이더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고 있다.

몬타폰 스탠다드 다운 재킷의 경우 안감은 나일론 100%, 충전재는 구스 솜 90%와 깃털 10%, 패는 라콘 100%가 적용됐다. 색상은 브라운과 네이비, 블랙, 베이지, 화이트 총 다섯 종류로 고객 기호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면, 폴리우레탄을 사용해 마찰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고급 헝가리 구스 다운을 사용해 가볍고 볼륨감을 강화했다.

또 다른 몬타폰 시리즈인 몬타폰 롱다운 점퍼는 헝가리 구스 다운을 사용해 가볍고 볼륨감이 뛰어나다. 특히 점퍼는 컬러와 기장감으로 코트 대응 아이템으로 착용할 수 있다. 안감과 충전재, 패는 몬타폰 스탠다드 다운 재킷과 동일하다. 색상은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다.

슈나이더 관계자는 “출퇴근 복장뿐 아니라 아웃도어 스타일에도 활용 가능하다”며 “대학생 조카나 친지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을 만큼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전했다.

# 우리쌀·특히 효모로 빚어 부드럽고 깔끔한 맛

## 롯데주류

### 백화수복

롯데주류는 올해 설날을 맞아 명절 선물용으로 73년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청주 '백화수복'을 선보인다.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의미인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우리 술로, 국내 차례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국산 쌀을 100% 원료로 하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특히 롯데가 자체 개발, 특허 출원까지 마친 효모를 이용해 '백화수복' 특유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명절 선물용으로는 700ml, 1L, 1.8L 등 3가지 용량으로 구성됐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차례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깊은 향과 풍부한 맛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기에 좋은 술"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제 청주인 '설화'는 최고 품질의 쌀을 52%나 깎



아내고 특수효모로 장기간 저온 발효해 청주 특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는 술이다.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09 세계 환경포럼' 등 세계적인 회의의 공식 만찬주나 건배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국향'은 엄선된 쌀을 100% 원료로 하여 저온에서 3차례 발효시켜 깊고 그윽한 맛이 일품이다. 데우지 않고 8도 정도로 차게 마시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우윳빛이 도는 반투명 용기와 붓 터치 느낌의 금박 라벨로 고급 청주의 품격을 더했다.

# 100% 순수 발효주... 가족들과 반주 '안성맞춤'

## 국순당

### 고구마 증류소주 '려'

국순당이 민속 명절 설을 맞이해 프리미엄급 고구마 증류소주 '려(麗)' 선물세트, 차례주 예담, 자양강장 세트, 범고창신선 선물세트 등 품격과 실속 있는 우리 술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국순당은 최근 인기가 높은 증류소주 선물세트인 고구마 증류소주 '려(麗)'를 1호, 2호로 구성해 판매한다. '증류소주 려(麗)' 세트 1호는 100% 고구마 증류소주로 알코올 도수 40% 및 25% 용량 500ml짜리가 각 1병씩 들어 있다.

'증류소주 려(麗)' 세트 2호는 고구마 증류소주 원액과 여주 쌀로 빚은 증류소주 원액을 블렌딩한 알코올 도수 25%(용량 500ml)짜리 2병으로 구성했다.

차례 전용 술 예담은 명절 차례상에 필요한 술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베스트 셀러 제품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왕실의 종묘제례에서도 10년째 전용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전용주로 개발됐으며 주정을 섞



어서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주다. 묵념길 후 뒷맛은 부드럽고 깔끔하며 차례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드럽고 맛이 좋아 음복례 및 가족과의 반주에도 안성맞춤인 술이다. 알코올 도수는 13%다.

자양강장 선물세트는 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동의보감 5대 처방전의 주요재료로 빚은 '자양백세주'와 각종 국제회의 공식 건배주와 세계 식품박람회 수상으로 인정받은 '강장백세주' 및 전통 증류주인 '백옥주'로 구성했다.

# 참나무통 속에서 10년 숙성 25도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 일품진로

하이트진로는 참나무통 속에서 10년의 기다림 끝에 깊은 맛을 지니고 출시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를 설 선물용으로 추천했다.

2013년 7월 리뉴얼해 출시한 이 제품은 프리미엄 소주로의 차별화를 위해 알코올 도수를 23도에서 25도로 높였다. 기존 제품의 다소 강한 향과 진한 뒷맛을 완화하고 묵통 숙성의 부드러운 향과 은은한 맛이 특징이다.

병모양은 기존 원형에서 사각 형태로 바뀌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을 살렸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는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로 교체해 전통적이면서도 한 국적인 부드러움을 표현했다. 일품진로는 세계 3대 주류품평회인 몽드셀렉션, SWSC, IWSC에서 연속으로 수상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주류로 처음으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게다가 몽드셀렉션에서는 3년 연속 대상 수상 제품에만 부여되는 최고품질대상을 2회 수상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세계 주요 프리미엄 주류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 공항에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프리미엄 소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생선회와 잘 어울리며, 깔끔한 목넘김과 오크향의 여운이 육류의 기름지고 달큰한 맛과도 조화를 이뤄 그 맛이 이름 그대로 일품"이라며 "독하지도 맛맛하지도 않은 25%의 알코올 함량으로 여성 들끼리의 가벼운 담소 자리에도 적합하고, 탄산수나 라임·시나몬 등을 더해 캐주얼하게 즐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발·다리 자주 붓는 부모님 처방전 없이 정맥순환 개선



### 센시아

설날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위해 부작용이 적고, 효능·효과를 입증받은 생약성분의 의약품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발·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아프고 저린 분께는 대표적인 생약성분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를 챙겨 드리는 것도 좋다.

동국제약 '센시아'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주성분인 식물성분의 정맥순환 개선제로 유럽에서 개발돼 국내에 도입된 약물이다. 정맥의 탄력 향상과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산화 효과 등을 통해 정맥순환장애를 개선해 주며, IMS 데이터 판매 1위 제품(2016년 3분기 기준)이다.

정맥순환장애는 성인의 약 50%가 증상을 보이는 중년질환으로 발·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아프고 저린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인 정맥의 결합조직이 약해져 늘어지고 확장돼 혈액 및 체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해 발생한다.

정맥순환장애를 계속 내버려두면 하지정맥류, 중증 습진, 다리 궤양 등이 생길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전신 순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정맥순환 장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혈액순환 개선제보다 '센시아'와 같이 정맥벽을 강화시켜주는 특화된 정맥순환 개선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센시아'는 약국에서 병원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1일 2정씩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된다. 제품 포장 내에는 정맥질환 정보가 수록된 책자, 휴대용 파우치 등이 포함돼 있다.



# 腸 속 세균 밸런스 유지 2개월분에 10일치 다..



### 프리락토

중근당은 최근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와 '프리락토 키즈'를 설 선물로 추천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내는 살아 있는 균으로, 장 내 세균의 밸런스를 유지해 몸속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 면역기능 개선, 감염 예방, 무기물의 흡수 개량, 스트레스에 따른 유해한 세균의 성장 방지, 과민성대장증후군 개선 등의 역할을 한다. 면역시스템을 강하게 하며 칸디다증과 관련된 장의 치료와 항생제로서도 권고됐다.

프리락토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19가지 균주 중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움 등 17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프리락토 키즈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질병 예방과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모유에 함유된 비피도스균 4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근당은 프리락토 제품 패키지에 밀폐용기를 사용해 수분과 공기로부터 유산균의 변질을 막고 보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일일 1회 분량씩 포장했으며 2개월 분에 10일치를 더한 70일 분을 넉넉하게 담아 부족함 없이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근당 관계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 악화돼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프리락토와 같은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비타민B'로 피로 회복·스트레스 해소 한번에



### 제텐-비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비타민B 섭취가 필수적이다. 비타민B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 피로 해소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구내염, 피부염, 빈혈예방은 덤으로 오는 효과다.

한미약품은 설 명절 음식과 손님맞이에 피로해진 컨디션 회복에 최적인 고향향 비타민B 복합제 '제텐비'를 설 선물로 추천했다. 제텐비에는 피로 해소와 에너지 대사 활성화, 빈혈 예방, 뇌기능 개선 등에 효과적인 비타민B군 10종은 물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C·E가 균형 있게 함유됐다. 또 비타민 B군 대사를 촉진하고 면역 및 생식기능을 강화하는 아연을 비롯해 임신부 필수 영양소인 엽산 등이 포함된 비타민 B 복합제(이노시톨)도 들어 있다.

특히 이 제품에는 미강유(쌀겨기름)에서 추출한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위장 신경증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때문에 제텐비는 과로와 스트레스, 술, 담배, 과로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의 건강 유지에 최적화된 종합 비타민제로 평가받는다. 제텐비는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 코팅정으로 목넘김이 쉽고 비타민B 특유의 냄새도 최소화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스트레스와 만성피로에 지친 현대인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제품"이라며 "제텐비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복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 지킴이"라고 설명했다. 제텐비는 12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 기준 1일 1회 1정 또는 2정을 식후에 복용하면 되며, 전국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잇몸질환·충치 예방... 원인균 99.9% 살균 효과



### 잇몸가그린 검가드

설명절 다양한 음식과 주류를 섭취하면서 자칫하면 잇몸 질환을 앓기 쉽다. 잇몸질환은 흡연, 호르몬, 치열불량, 가족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근본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이다.

동아제약은 잇몸질환을 경험했거나 앓고 있고, 잇몸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 질환 발생 후 치료가 아닌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잇몸가그린 검가드'를 추천했다.

'잇몸가그린 검가드' 주성분은 잇몸질환과 충치 예방을 위한 일불소인산나트륨(SMFP), 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CPC), 글리시리진산이칼륨(GK2)과 잇몸 보호에 효과가 있는 토크페올아세테이트(TPA), 판테놀이다. 살균력 평가 연구 결과 잇몸질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 99.9% 살균, 충치 원인균인 뮤탄스균 99.9%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 또 6주간의 임상 시험을 통해 잇몸질환인 치은염과 치주염 예방 및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사용은 식사 후 양치질과 함께 하루 3번 하는 것이 좋다. 적



당량(약 10~15ml)을 입에 머금어 30초 정도 가글 후 뱉어내고, 마시지하듯 잇몸에 칫솔질해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잇몸은 신체기관 중 가장 재생이 느려서 손상 시 회복 및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예방 차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잇몸가그린 검가드는 잇몸질환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 99.9% 살균을 통해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잇몸 건강을 위한 일차적 선택제로 자리매김할 바란다"고 말했다. '잇몸가그린 검가드'는 약국, 편의점, 할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해운株, 한진 덕에 나발... 대선 테마株, '文·潘 희비'

〈문재인·반기문〉

## 베스트&워스트 1월 9~13일

1월 둘째 주(1월 9~13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7.67포인트(1.35%) 상승한 2076.79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사자' 행진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9.00포인트(-1.39%) 하락한 634.68로 마감했다. 개인은 3475억 원 사들이며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팔자'로 돌아서 각각 1972억 원, 896억 원 순매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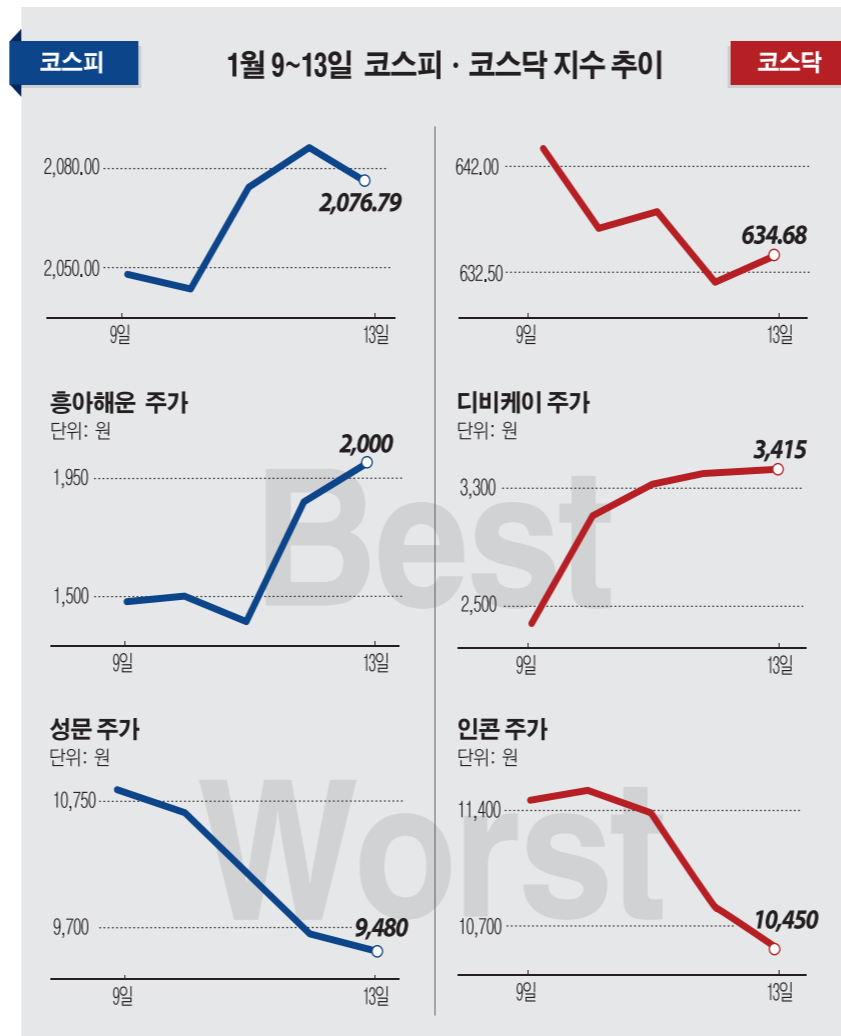
◇해운주 동반 상승 속 흥아해운 '썩춤' =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흥아해운이다. 흥아해운 주가는 지난 12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여 1520원에서 2000원으로 31.58% 뛰었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 주가가 널뛰면서 다른 해운업체들이 영향을 받은 가운데 흥아해운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14.29%)과 동국제강(11.72%) 등 철강주도 동반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지속할 중국의 공급 개격으로 철강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 대선 행보 나선 반기문 관련주 약세 = 귀국 후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돌입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한창은 지난주 13.39% 하락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내렸다. 한창은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이 기반이던 이유로 반기문 테마주에 묶여 있다.

콘텐서용 금속 증착 필름 생산업체 성문전자는 12.22% 하락했다. 이 회사는 임원이 반 전 총장과 막역한 사이인



## '주가 널뛰기' 한진해운 영향... 관련업체 동반상승 '흥아해운' 1520원→2000원 31.58%↑ 상승1위에 문재인 지지도 1위... 'DSR·제강' 20% 이상 급등 반기문 대권행보 돌입에 '한창' '성문전자' 등 약세

다. STX엔진은 지난 13일 주가급등 관련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국내조선소 2곳과 500t 경비함 8척에 들어갈 주기관 디젤엔진 및 갑속기어 공급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STX중공업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되면 출자전환(재무상계)에 의한 STX중공업 보통주 362만3356주를 90억 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문재인 테마주'도 급등했다. DSR(21.42%)와 DSR제강(20.81%)은 지난 13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들 종목은 DSR제강 대표이사이자 DSR 2대 주주인 흥아주 씨가 문 전 대표와 경급과 동문으로 알려져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철강업황 개선 기대감에 세아제강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반기문 테마주로 불렸던 에스씨엔지(10.77%)와 부산주공(-10.11%)도 약세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반기문 씨가 대표로 있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됐지만, 반 씨가 언론을 통해 반 전 총장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연관성이 사라졌다.

반 전 총장은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밖에 삼화전자(-10.71%), 덕성(-10.38%), 갤럭시아에스엠(-9.86%), TBH글로벌(-9.69%), 신풍제약(-9.31%), 이스타코(-8.87%) 등이 주가 하락을 상 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유혜은 기자 euna@

###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흥아해운	255.43	1,520	2,000	31.58
STX엔진	205.47	6,860	8,930	30.17
유양디앤유	211.57	3,755	4,585	22.10
DSR	169.60	8,730	10,600	21.42
DSR제강	150.48	8,650	10,450	20.81
동국제강	113.77	3,585	4,320	20.50
월비스	218.88	3,190	3,840	20.38
세아제강	648.00	94,500	108,000	14.29
코리아세라프론트	295.26	11,000	12,500	13.64
동국제강	1,273.58	11,950	13,350	11.72

###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이스타코	72.63	1,860	1,695	-8.87
신풍제약	294.07	6,120	5,550	-9.31
TBH글로벌	171.03	9,080	8,200	-9.69
갤럭시아에스엠	60.47	2,435	2,195	-9.86
부산주공	66.33	3,265	2,935	-10.11
덕성	92.04	6,550	5,870	-10.38
삼화전자	37.47	2,940	2,625	-10.71
에스씨엔지	44.68	4,920	4,390	-10.77
성문전자	156.94	10,800	9,480	-12.22
한창	189.52	6,350	5,500	-13.39

###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디비케이	40.87	2,370	3,415	44.09
케이씨에스	94.68	5,560	7,890	41.91
메가엔디	152.55	4,870	6,820	40.04
오리엔탈정공	119.00	2,140	2,935	37.15
솔트웍스	38.75	3,285	4,450	35.46
에스코넥	210.81	2,445	3,230	32.11
팍스넷	118.53	8,100	10,700	32.10
에스디시스템	36.33	7,450	9,560	28.32
폭스브레인	109.28	2,440	3,000	22.95
레이젠	93.81	2,790	3,360	20.43

###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큐로홀딩스	152.89	2,960	2,540	-14.19
세븐스타웍스	70.33	4,800	4,080	-15.00
흥국	54.96	10,500	8,920	-15.05
제용전기	79.11	5,810	4,925	-15.23
에이씨티	60.91	11,800	9,960	-15.59
파인디앤씨	151.89	9,600	8,100	-15.63
제용산업	98.00	11,800	9,800	-16.95
퓨전데이터	41.36	16,650	13,650	-18.02
인콘	66.83	12,800	10,450	-18.36
큐캐피탈	127.77	1,755	1,355	-22.79

◇디비케이·오리엔탈정공 '급등'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금속 가구 제조업체 디비케이였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디비케이는 2370원에서 3415원으로 44.09%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디비케이에 추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매각 본입찰을 실시한 오리엔탈정공은 37.15% 상승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의 매각 본입찰에 유압코와 중소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대상은 채권단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지분 50%+1주(2027만2981주)와 경영권이다. 매각 측은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인콘(18.36%)은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추진 검토 소식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인콘은 지난 9일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새내기주' 퓨전데이터는 18.02% 하락했다. 이 회사는 2001년 보안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창립해 2013년 가상화솔루션을 개발·공급하면서 성장했다. 신규 사업인 클라우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화장품 원료 제조기업 에이씨티는

## 금속가구 제조업체 '디비케이' 44.09%나 급등 매각 본입찰 실시 '오리엔탈정공' 37.15% 경중반도체 굴기에 장비업체 '폭스브레인' 강세 사드갈등... 화장품 원료제조 '에이씨티' 하락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말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양해각서(MOU)를 작성할 계획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3~4주간의 실사, 기타조건 협상, 내부품의 등을 거치면 오는 3월 말 인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驅起) 본격화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에 긍정적인 반석이 나오면서 폭스브레인(22.95%)이 강세를 보였다. 폭스브레인은 반도체 검사용 장치와 박막 액정 표시장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밖에 케이씨에스(41.91%), 메가엔디(40.04%), 솔트웍스(35.46%), 에스코넥(32.11%), 팍스넷(32.10%), 에스디시스템(28.32%), 레이젠(20.43%) 등이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인콘,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에 '울썩' = CCTV 영상 네트워크보안장비

15.9% 빠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갈등 속에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불허로 11톤에 달하는 한국산 화장품이 반품 조치됐다. 에이씨티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등 다수의 브랜드에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세븐스타웍스는 15.0% 하락했다. 세븐스타웍스는 지난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주급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6일 세븐스타웍스를 공시 반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 위반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창조, 융합, 연결, 확장 등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2050년

## STATE OF THE FUTURE 세계미래보고서 2050

미래사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 376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2050년을 읽으려면 먼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세계미래보고서 2050》은 신기술과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지금까지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는 에너지, 인공지능, 직업, 우주개발, 수명연장 기술 등 주로 소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예측을 소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를 선택했다. 창조, 문제 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등이 그것이다.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는 이들 키워드로 수렴된다.

문의 : 02-3156-3824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110만 독자가 선택한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서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알은 지식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양장본 세트(전 2권) + 예코백



채사장 지음 | 1권 376쪽 2권 372쪽  
한빛비즈 | 값 32,000원

###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콘셉트로 재해석한 표지와 한정판으로 제작된 '지대넓얕' 예코백으로 소장 가치를 높인 특별한정판!

2017년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대넓얕》을 선물하세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알은 지식》은 개별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계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통시적으로 알려준다. 이 거칠고 거대한 흐름을 꿰다보면 세계사는 물론 경제 원리, 정치 이슈, 사회문제들이 한 방에 명쾌히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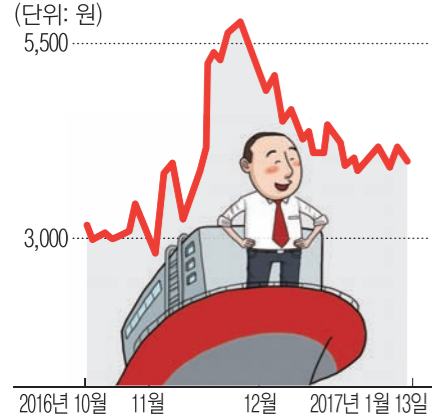
※ 한정수량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재고 소진 시 종료됩니다.

문의 : 02-325-5506



# ‘해운시스템’ 세계 2위 토탈소프트, 올해도 순항

## 토탈소프트 주가 추이



## 해외매출 90% 차지...글로벌 20대 선사 중 10곳에 공급 ‘CATOS’ 터미널 계획·운영·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코스닥 상장사인 토탈소프트의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다. 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시스템사 가운데 공급 기준 세계 2위로, 20대 선사 중 10대 선사에 시스템을 공급 중이다.

16일 토탈소프트 관계자는 “최근까지 해운시스템 공급 기준 세계 2위”라며 “해외 매출이 90% 이상으로 20대 선사 가운데 10대 선사에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1위는 미국 나비스(NAVIS)사로 전 세계 230여 개 터미널에 시스템을 공급 중이다. 토탈소프트는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80개 터미널에 공급했다. 이밖에 타이드웍스(Tideworks)가 52개 이상, RBS가 20개 이상 터미널에 공급 중이다.

토탈소프트의 CATOS는 일반 및 자동화 터미널 운영을 위한 지능화된 운영시스템으로 전 세계 80여 개 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됐다. 터미널의 계획(Plan), 운영(Operation), 관리(Management) 등 업무 전반에 필요한 시스템을 하나의 제품으로 제공해 터미널 운영의 최적화와 생산성의 최대화를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해운업계는 지난 수년간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여전히 불투명한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바닥을 쳤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산업은행이 내놓은 ‘2017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업은 올해 물동량이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도 “그동안 최악이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i78@

# 코디엠 OLED사업 반짝... 42억 규모 장비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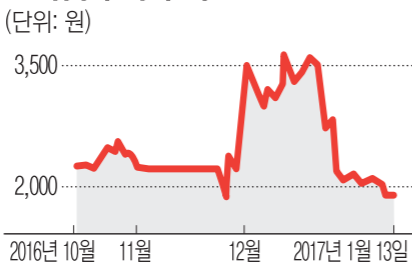
## 세메스에 ‘베이킹’ 납품 계약 작년 4분기 매출 240억 최대 올해 10% 이상 실적향상 기대

최근 바이오 사업을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이 기존 주력사업인 반도체 및 OLED 장비 사업에서도 꾸준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코디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메스와 42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다.

코디엠은 이번 계약을 통해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의 주요 고객사인 세메스에 OLED용 베이킹(Bake)을 공급한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세메스는 코디엠의 OLED 장비 제조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우수평가 협력사로 선정된 바 있다. 양사는 향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코디엠 주가 추이



코디엠은 반도체 및 OLED 장비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35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나서며 등 OLED 시장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디엠은 기존 LCD인 SDC라인을 OLED로 교체하는 업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인력 충원, 조직개편, 업무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해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코디엠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약 240억 원가량의 분기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OLED 장비부문 수주 잔고가 155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최소 10%를 웃도는 수준의 매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디엠은 기존사업인 반도체 및 OLED 장비 제조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용배 대표이사는 “올 한 해 반도체 및 OLED 산업 활황에 힘입어 분사인 전 안사업장 중심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고부가가치 장비군 공략 등 수익성 향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신규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웰마커바이오 설립을 통한 항암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 플랫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 굿센, 전기공사공제조합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협약

## 체계적·효율적 자원관리 시스템 ‘e-Novator ERP·fERP’ 제공

아이티센의 자회사 굿센은 전기공사공제조합과 클라우드 ERP 서비스(e-Novator ERP 및 fERP)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굿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공사공제조합원에게 전 사적 자원관리 서비스인 e-Novator ERP와 fERP를 제공한다. 조합원들의 기업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Novator ERP는 중·대형 건설사에 특화된 ERP 솔루션이며, fERP는 중소 건설사의 실정에 맞게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록 구성된 현장 중심형 클라우드형 서비스다.

fERP는 경영자가 기업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해 빠른 의사 결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장된 엑셀 편집기를 이용해 작업일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을 손쉽게 작성하고 분사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투입 원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fERP는 지난해 11월 한국클라우드 산업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인증을 획득했다. 2016년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돼 안정성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굿센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중·대형 규모의 e-Novator ERP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의 임대형 fERP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다”며 “향후 전문건설 조합 및 협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센은 아이티센의 자회사로 지난해 10월 코넥스에 상장했다. 건설 ERP(전사적자원관리), 기업 협업 솔루션, 건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공공 클라우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엑셈 ‘자동화 시스템’ SK하이닉스에 공급

## 전 구간·E2E 모니터링 인터맥스... 이상 발생 인자·프로세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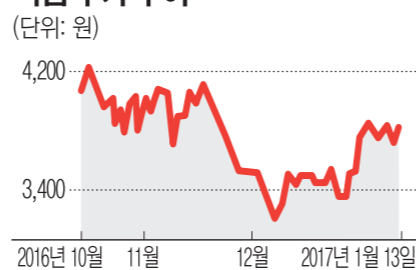
IT시스템 성능관리 및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엑셈은 전 구간·E2E(End to End) 모니터링 제품인 인터맥스(InterMax)를 SK하이닉스의 자동화 시스템 영역에 신규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엑셈은 지난해 인터맥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며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에 주력 제품인 맥스게이지(MaxGauge)를 수주하는 데 이어 인터맥스까지 수주하는 결

과를 얻었다. 엑셈은 SK하이닉스 이전과 정주 공장 핵심 시스템의 미들웨어(Middleware) 및 데몬에 인터맥스 제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터맥스는 SK하이닉스 내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됐다. 시스템 이상 발생과 성능 저하를 인지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된다. 최초 사용자 요청부터 데이터베이스(DB)까지 IT 시스템 전 구간 성능을 구간별 응답시간 데이터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 엑셈 주가 추이



특징이다.

조종암 엑셈 대표는 “이번 SK 하이닉스 신규 수주는 엑셈의 기술과 신뢰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이번 수주가 인터맥스의 새로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IPO 반도체 중고장비 거래전문 ‘서플러스글로벌’

# 글로벌 2000여개사 탄탄한 네트워크 향후 3년간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16년간 40여국에 수출 매년 1000대 이상 유통 최근 1만7000평 부지매입 주식 총 1875만주 발행



김정용 대표

부품,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등의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 구성 또한 정비를 마쳤다. 한국 본사를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에서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300mm 웨이퍼 생산장비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실시해 향후 시장 또한 선도할 계획이다.”

김정용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13일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현재 규모의 2배 이상 되는 약 5만6000여㎡(1만7000평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중고장비 클러스터를 향후 3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마케팅 믹스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10여 개의 세미나 전시회도 참가한다.

최근 실적도 성장세다. 지난 10년간 23%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5년 매출액 954억 원, 영업이익 142억 원, 당기순이익 9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용 대표는 “지난 16년간 1만5000대 이상의 장비를 거래하며 글로벌한 네트워크와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매년 시장에 공급되는 중고장비는 보통 7000여 대로 이 중 약 1000여 대를 거래하고 있다.

16년간 전 세계 40여 개 국에 수출하며, 약 2000여 개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해왔다. 김 대표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리퍼비셔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고장비로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반도체 장비

거래 전문기업이다.

설립 초기 박리, 식각기, 세정기 등 장비 생산했으나, 고객사의 국산화 요구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 소재를 개발하면서 ‘장비-부품-소재’라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비 사업 부문은 국내 주요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에도 공급될 정도로 대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품의 경우 OLED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정제를 위한 총유기탄소(TOC) 산화장치, 자외선 램프(UV Lamp) 등을 생산한다. 에프엔에스테크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순수 제조용 UV Lamp를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뒤 현재는 국내 주요 고객사에게 직접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 에프엔에스테크 내달 상장...110억 조달

주식 총 100만주 신규발행 공모가는 최대 1만3000원

디스플레이 장비기업 에프엔에스테크가 2월 코스닥에 상장한다.

에프엔에스테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에프엔에스테크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100만 주다.

공모 예정가는 1만1000~1만30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110억 원이다. 2월 9~10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 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청약받는다. 상장 및 매매개시 예정은 2월 말이다.

2002년 설립된 에프엔에스테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장비 및 부품, 소재를 제조하는 디스플레이·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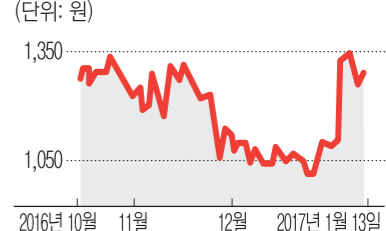
체 전문기업이다.

설립 초기 박리, 식각기, 세정기 등 장비 생산했으나, 고객사의 국산화 요구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 소재를 개발하면서 ‘장비-부품-소재’라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비 사업 부문은 국내 주요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에도 공급될 정도로 대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품의 경우 OLED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정제를 위한 총유기탄소(TOC) 산화장치, 자외선 램프(UV Lamp) 등을 생산한다. 에프엔에스테크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순수 제조용 UV Lamp를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뒤 현재는 국내 주요 고객사에게 직접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 오성엘에스티 주가 추이



# 반도체서 신소재로 오성엘에스티 ‘변신’

코스닥 상장기업 오성엘에스티가 반도체 장비사업에서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신소재 전문기업 변신에 나선다.

오성엘에스티는 도공4호기(초광폭) 설비라인 증설을 통한 매출액 증대를 위해 신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익산 사업장에 1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LCD용 기능성 광학필름 등을 생산하는 신소재 분야를 미래 수종 사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번 투자는 늘어나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가 목적이다.

오성엘에스티의 현재 연간 생산능력(CAPA)은 3000만㎡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생산능력이 두 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00억~350억 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분야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 생산품인 P 보호필름의 경우 일본 등 외국산에 전량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함으로써 사업 초기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며 “반도체 장비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호필름 생산시설에 필수인 최상의 클린도 유지가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분야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 이상인 고부가 사업”이라며 “이번 투자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객 오더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성엘에스티는 반도체 장비분야 침체로 2013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 에스맥에 인수됐다. 에스맥 주도로 1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데 이어 이달 25일 300억 원 규모의 제3차배정(에스맥-에스맥컨소시엄) 유상증자 납입이 예정돼 있어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두선 기자 sun@

SAMSUNG

2017년  
시인이 되자  
갤럭시와 함께



\* 오렌지 레드 컬러 스트랩 발매



Galaxy S7 edge | S7 Gear S3